

倉川里 學術調查

日 時：1972年 8月 21日—24日

地 域：南濟州郡 安德面 倉川里

分 野：社會背景・方言・禁忌談・說話・信仰

머 리 말

제주도는 地理·歷史·社會의 特殊性으로 말미암아 珍重한 言語·口碑文學·民俗等 國語國文學의 學術資料가 無盡藏 갈려 있다.

이를 發掘·蒐集·研究하고 民族文化 向上에 이바지해야 함은 우리 國語國文學科의 重要 使命의 하나다.

本科의 教授와 學生들은 이미 주어진 使命을 痛感하고 個別 혹은 集團의 調査·研究 活動을 誠實히 해 왔다.

이 散發의 調査·研究 活動外에 科單位の 組織의 學術調査를 이번 次로 實施했다. 한 村落을 選定, 集中調査함으로써 調査를 效率化하려는 것이다.

對象地는 一次로 南濟州郡 安德面 倉川里를 擇했다. 이곳은 제주도의 典型的 農村일 뿐더러 모든 口碑傳承과 傳來的 遺風이 比較的 高스란히 남겨진 마을이기 때문이다.

네분의 指導教授 밑에 12名の 調査班員이 方言·說話·社會 및 信仰·禁忌談等 4分野로 分班 編成하고 1972年 8月 21日부터 4日間 調査 活動을 벌였다.

調査期間이 너무나 促迫하여 所期の 成果를 거둘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만큼의 報告라도 낼 수 있음은 오로지 里民들의 따뜻한 協助의 德이었다.

金奉奎先生을 비롯한 모든 里民 및 숙박을 허락해 준 倉川國民學校, 특히 同校 姜太熙校監에게 感謝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集團의 現地 學術調査는 國語國文學科의 年次的 重要 作業의 하나로 施行해 나갈 計劃이다.

社 會 背 景

指導教授	玄	容	駿
班 員	文	聖	淑 (국4)
	李	起	奉 (국2)
	金	承	順 (국1)

차 례

- | | |
|-----------|-----------|
| I 地理的 環境 | II 歷史的 背景 |
| III 人文 概況 | IV 家族·親族 |

I 地理的 環境

倉川里는 濟州道 南濟州郡 安德面의 한 行政里인 同時에 自然部落이다. 東은 中文面 上·下峯里에 接하고, 西는 安德面 柑山里에 接해 있으며, 北은 安德面 上倉里에, 南은 海岸部落인 安德面 大坪里에 接해 있다. 따라서 倉川里는 濟州島의 海岸部落을 一周하여 돌아가는 一周道路 沿邊에 位置하여 있으면서도, 實은 所謂 中山間部落에 該當된다.

東北쪽으로 멀리 漢拏山이 내다보이는 이 部落은 緩慢히 펼쳐져 내려오는 平原 위에 자리잡고 있어 土質은 比較的 良好하다. 北쪽으로는 上倉里를 거쳐, 牧養地에 인접하여 있는 上川里 너머의 들판과 山岳들이 한 눈에 보이지만, 南쪽은 部落의 바로 境界에 높이 335m의 軍山이 받쳐 서 있고, 그 앞을 倉庫川 部落을 감돌아 가로질러 가고 있다. 그래서 바로 남녘 마을인 大坪里나 바다는 이 山으로 가리워져 안보이며, 따라서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처럼 느끼게 된다.

마을은 東西南北으로 他里들이 點有하고 있기 때문에, 安德面의 11個里中에서도 그 面積이 第一 좁아서, 中心部의 集落과 그 周邊의 若干의 農耕地로써 全體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住民의 農耕地는 마을 밖으로 나아가 上倉里, 柑山里, 中文面 上貌二里에 大部分이 있다.

濟州島의 中山間部落이 一般的으로 샘물이 없어 用水가 어려운 實情이 었지만, 이 部落은 <통물> <옥밤물> <남당물> 등 샘물이 湧出하고 있어 食水나 用水에 不便이 없이 되어있다. 이러한 位置的, 地質的, 用水의 條件이 이 部落을 形成케 하고, 典型的인 農村으로 만들게 한 것이라 보인다.

II 歷史的 背景

이 마을은 지금으로부터 299年前, 當時의 留鄉座首 姜渭聘이 設村했다 한다. 1958년에 편찬한 이 마을의 里誌는 그 設村 由來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285年前 即 檀紀 4007年(肅宗 甲寅) 春에 姜渭聘(當年 31歲로 推測)이 大靜座首로 있을 때, 濟州牧使 邵氏(名未詳)가 巡歷 行次로 旌義와 大靜 境界에 이르렀을 때, 迎對 나갔던 座首 姜渭聘이 人品됨에 比하여 그 衣服이 너무 貧弱함은 그 家勢가 극히 貧寒함인줄 알고, 그 一行이 倉庫川 머리에 이르러 잠간 休息할 때, 牧使가 直接 倉川 中央路 큰거리, 지금의 學校 北側을 가리키며, 저기 집을 지어 살면 當代 大靜 甲富는 될 것이다 라고 指示하였다. 姜渭聘은 집에 돌아간 後, 이 말을 어기지 않고 長男임에도 不拘하고 父母의 膝下를 떠나 赤手空拳으로 移住하여 開墾하기 시작하였다.

그 後, 吳泰連氏, 金斗崗氏가 順次로 旌義方面에서 移住하여 와서 사위가 되고, 그의 子孫들로 하여금 一個 族屬部落을 形成하였으니 곧 倉庫川里라 稱하였다.』

이런 由來 說明과 더불어, 里誌는 設村始祖 姜渭聘의 人的事項을 적었

으니, 그는 檀紀 3978年 顯宗 癸未生으로 大靜邑 上幕里 戶主 姜縉의 長男이며 留鄉座首의 官職을 했다고 한다.

이 年代 考證에는 多少 틀림이 있으니, 그가 癸未生이면 顯宗애가 아니라 仁祖 21年 檀紀 3976年, 西紀1643年이 될 것이요, 設村한 해가 甲寅年이면 肅宗 甲寅이 아니라, 顯宗 15年 甲寅, 檀紀4007年, 西紀1674年이 되며, 그가 當年 32歲 되던 해가 된다. 그러고 보면 이 마을의 設村은 지금 (1973年) 으로부터 299年前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姜氏와 그의 사위인 吳氏와 金氏에 의하여 設村된 이 마을은 그 앞을 흐르는 <창고내(倉庫川)>의 川名대로 部落名을 <창고내>라고 부르게 되었고, 後에 漢字表記에 따라 <倉庫川里>라 하다가 1914年에 <倉川里>라 縮約 改稱하게 되었다.

現在의 倉川里는 그 넓이가 매우 좁아졌지만, 本來는 安德面 大坪里, 上倉里, 柑山里 東쪽 一部와 中文面 上貌二里까지 倉川里에 들어 있어, 그 넓이는 1,237km²에 이르렀었다. 그러던 것이 1900年에 上倉里가 分里 되고 韓日合併後 1914年 土地細部測量時 西쪽 一部가 柑山里에, 上貌二里는 中文面に 屬하게 되었으며, 1951年에 大坪里가 行政上 倉川里에서 分里되어 나아가서 現在의 倉川里가 되었다.

結局, 韓日合併과 土地細部測量은 里勢의 急激한 變化를 일으킨 것인데, 이는 同時에 共同體의 部落의 組織과 部落民의 生活樣式에도 커다란 變化를 가져 왔다. 當時의 部落共同體의 組織을 보면 ① 鄉長 ② 警民長 ③ 尊位 ④ 農監 ⑤ 譏察 ⑥ 洞將 ⑦ 임(任) = 下輩의 體系였는데, 各所任의 職務는 다음과 같았다.

① 鄉長: 德望있는 者로서 鄉會에서 推薦되며, 部落의 長이다.

② 警民長: 警民篇에 依하여 里民의 戒備 및 警防에 對한 事務를 擔當하였다.

③ 尊位: 一般庶務와 事務를 處理하였다.

④ 農監: 農事に 關한 事項은 勿論, 土地等級의 調査, 稅穀의 査定과

牛馬에 關한 사항까지 處理하였다.

⑤ 譏察 : 査察, 搜查等 防犯에 關한 사항을 處理하였다.

⑥ 洞將 : 任以下의 下輩 (使喚)를 統率하였다.

以上の 所任中, 警民長과 尊位는 里民의 추천을 거쳐 官에서 任命하였고, 農監, 譏察, 洞將은 警民長과 尊位의 추천으로써 鄉會의 承認을 거쳐 任命하였었다.

倉川里는 이러한 共同體의 組織이 里長 中心의 近代行政體制로 바꾸어지고, 開化의 물결과 日帝의 壓迫과 解放後의 4·3事件등 많은 苦절을 겪으며 現在에 이르렀으니, 그 主要한 사항을 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里誌에 依함)

1908年 戶籍及 婦人 作名制 實施

1909年 倉庫川市場 開始. 里長 月給制 實施

1912年 土地申告及 細部測量 實施. 일주도로 新開通.

1915年 電信開通

1918年 牛馬籍 實施

1936年 鄉舍 建築

1939年 街路擴張, 創氏改名, 飛行場 勞務員 動員, 日軍 肉用 牛馬 供出
馬糧用 大麥 供出, 鋤器 供出.

1944年 日軍駐屯, 牛馬耳標裝着

1946年 倉川枝 設立認可

1947年 農醮祭 廢止

1948年 4·3事件으로 因한 被害, 死亡者 64名, 燒失家屋 18棟, 上倉里
及 上院二區民 疎開로 因하여 本里 入住, 上倉里 再建 轉出.

1951年 大坪里 分里, 現物稅制 實施.

1955年 部落城 撤去

1959年 사라호 태풍 被害

1960年 地域社會開發契 組織

1962年 暴雪 20日間 繼續, 牛馬 多數 凍死, 交通杜絕, 長霖 3月~5月
60餘日 繼續

1963年 五個里 (上·下倉, 大坪, 柑山, 上貌二區, 合用祈雨祭 舉行
村老들의 傳承에 따르면 設村始祖 姜渭聘은 牧使의 豫言대로 果然 當代
大靜 甲富가 되었고 그 아들과 사위들에게의 遺産 分配는 어마어마한 것
이었다 한다. 이렇게 姜, 吳, 金 三姓의 混姓氏族部落으로 裕足하게 出發
된 이 마을은 그 後 儒學이 널리 崇尙되어 많은 書生과 官員이 배출되어
儒生村으로 이름이 높았으니, 里誌에 傳하는 仕官과 壽職을 보면 다음과
같다.

金商材 監牧官 檀紀4135年

吳道愼 及第 孝廉원 參奉 乾隆

吳光宗 通政大夫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 同治 9年

姜世達 爲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 雍正13年 6月

姜道豐 武科丙科第三百九十三人及第出身 乾隆 4年 7月

吳現鳳 爲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 光緒19年 9月

姜瑞璋 爲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 光緒元年

吳仁鳳 爲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 光緒19年 9月

이러한 先代에 이어 오늘날의 人士들로는 初代 安德面長을 비롯하여 現
安德面長, 安德國民學校長, 南濟州郡 農協組合長등이 있어, 마을의 支柱
的 存在가 되고 있다.

■ 人 文 概 況

倉川里는 하나의 行政里인 同時에 自然部落이다. 換言하면 1個의 自然
部落이 1個의 行政里를 構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自然部落인 이 마
울은 다시 이를 細分할 때, <통물동네> <토산동네> <알동네> <새동네> 로
四分된다. 이 細部區域은 飲料水, 用水의 管理 使用, 방앗간의 管理 使用
등으로 하나의 集團의 性格을 띠고 있었으나, 오늘날 上水道의 施設, 精

米工場の 施設 등으로 그 集團 形成의 契機가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다.

現在, 이 마을에는 253家口가 있어, 人口는 997人이다. (里事務所 統計) 따라서 家口當 平均 人口는 3.94人이 된다. 이 數는 濟州道 全體로 본 家口當 平均 人口 4.6人에 比하면 현격히 적은 것인데, 이는, 이 마을의 住宅事情이 넉넉하고, 分家가 철저히 되고 있기 때문이라 보인다. 住民의 性比는 女子 100人에 대하여 男子 94人으로서 全道の인 性比와 큰 差가 없다.

住民의 住宅狀況을 보면 <表1>과 같이 262棟이 있어, 家口當 平均 所有는 1.03棟이나 되어 넉넉하며, 13.3%나 改善가 이루어져 있다.

<表1> 住宅狀況

區分	改	良	草	家	計
實數	44		218		262
%	16.8		83.2		100.0

한편, 住民의 構成을 姓氏別로 보면 <表2>와 같이 姜氏 吳氏가 各各 3分の 1以上을 차지하였고 金氏가 近 15%나 된다. 이는 이 마을의 設村氏族인 姜, 吳, 金氏가 現在까지도 部落의 主勢力氏族의 地位를 維持하고 있음을 意味하며, 그만큼 主氏族 勢力의 變動 없이 오늘날까지 混姓氏 族部落을 形成하고 있음을 뜻한다.

<表2> 住民의 姓氏別 集計

姓氏	姜	吳	金	秦	李	梁	高	洪	車	元	蔡	宋	全	計
家口數	70	69	33	11	11	11	7	2	1	1	1	1	1	221
%	31.7	31.2	14.9	23.2	23.2	23.2	23.2	23.2	23.2	23.2	23.2	23.2	23.2	100.0

<調査된 221家口の 集計임. 이 가운데 女 1人家口 15가 있으므로 실지와 약간의 차이가 있음>

住民의 生業은 約 95%의 家口가 農家로서 보리, 조, 고구마, 유채, 콩

밭등 밭농사를 주로 하고, <表3>이 보이는 바와 같이 논이 극히 적어 쌀 生産量은 적다. 家口當 平均耕地面積은 밭과 논을 합쳐 1.332坪밖에 안되어 零細性을 띠고 있으며, 近來에 와서 約 3.40家口가 柑橘栽培를 시작하여 앞으로 所得增大가 期待되고 있다.

家畜의 所有狀況은 <表4>와 같다.

<表3> 土地 所有 狀況

(單位: ha)

區 分	計	田	番	林 野	其 他
面 積	315	109.7	2.4	71.5	131.4
家口平均	1.245	0.434	0.01	0.282	0.519

<表4> 家畜 所有 狀況

區 分	牛	馬	豚
實 數	208	40	157
家口當 平均	0.82	0.16	0.62

學校는 396名의 學生을 保有한 倉川國民學校가 있는데, 學區는 倉川里를 비롯하여 上倉里 上峯二里로 되어 있고, 上川里와 廣坪里가 學區로 되어 있는 倉川國民學校 分校가 上川里에 있다. 이 分校에는 1~6學年까지 合計 48名의 學生이 있다.

마을의 交通은 일주도로변이므로 便利하며, 市場은 每5日과 8日에서 中文面 中文里 장을 利用하나, 部落內에도 작으나마한 구멍가게가 10個所 있어 部落民의 日用品 需要에 應하고 있다.

部落의 組織으로는 里行政體系 外에 地域社會開發契, 青年會, 4H구락부, 부인회, 老人會, 老婦人會등이 있다. 青年會는 18歲以上 35歲까지의 青年들로 組織되어 新生活運動의 推進 및 風紀團束등 事業을 하고 있고, 4H구락부는 마을文庫의 運營등으로 새農村 建設에 힘쓰고 있다.

IV 家 族 · 親 族

島內 他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마을의 경우에도 家族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은 적잖은 문제가 있다. 그 문제점은 차차 밝혀 나가기로 하고, 우선 마을의 班名簿에 1家口員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구원을 가족으로 看做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이 가구원들은 1인가구를 除外하면 夫婦 또는 夫婦와 夫系의 尊卑屬으로 構成된 最小親族集團이요, <同一 울타리 안>에 居住하여 住居空間이 같으며, 公共의 對外的으로 權利 義務가 하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1가구원은 外的으로 볼 때 部落構成의 單位集團이요, 親族의 最小集團으로서 <對外的 가족>이라 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가족의 限界를 정하여 볼 때,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里統計數字로 計算한 平均 가족수는 3.94人이다. 그런데, 이번엔 調查된 221가구를 統計해 본 바로는 가구당 平均 人員이 4.1人이었다. 이 두 統計에 1.6人이란 差異가 나기는 하지만, 어느 數로 보든 濟州道 全體로 본 가구당 平均 人員이나, 全國의인 가구당 平均 人員에 比하면 현격히 적은 數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가족수가 적은 것은 <表5>가 보이는 바와 같이 가족원수 統計에도 나타난다.

<表5> 家族의 크기

區 分	實 數	%	人 員 數
1人家族	23	10.5	23
2人家族	32	14.5	64
3人家族	49	22.2	147
4人家族	26	11.8	104
5人家族	26	11.8	130
6人家族	27	12.2	162
7人家族	24	10.9	168

8人家族	7	3.2	56
9人家族	5	2.3	45
10人家族	1	0.5	10
計	221	100.0	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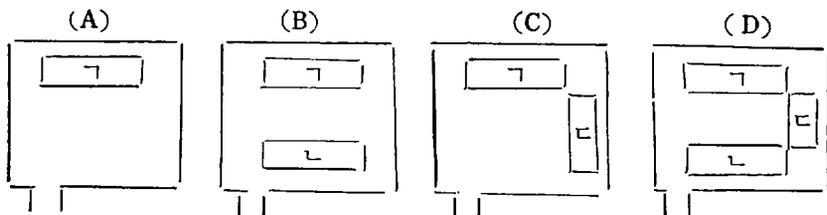
이 表에 보면 3人 가족의 가구가 49로서 22.2%를 점하고 2人 가족의 家口가 32로서 14.5%나 되며 6人 가족이 12.2%, 4人 가족, 5人 가족이 각각 11.8%나 되고 있다. 이러한 現狀은 平均家族數가 4人 内外가 됨을 立證해 준다.

平均 4인 内外의 가족이라는 것은 일일이 統計로 提示할 必要도 없이 그 家族類型이 부부와 그의 未婚子女들로 構成된 核家族임을 말해준다. 事實上 濟州島의 가족의 類型은 核家族을 理想으로 하고 있고, 實際에 있어서도 核家族이 거의 全部라 해도 좋을만 하다.

이 마을의 가족의 構成을 世代別로 보면 2世代家族과 1世代家族이 大部分이고, 3世代家族이 얼마간 있다. 2世代家族이란 부부와 그의 未婚子女들로 構成된 家族이요, 1世代家族이란 1人 家口 아니면 부부로 構成된 家族이며, 3世代家族이란 부부와 그의 未婚子女 그리고 父母의 世代로써 構成된 가족이다. 이 〈家族〉이라고 하는 것은 班名簿에 同一家口員으로 登錄되어 있는 人員을 말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위에서, 家族의 範圍 規定에 問題性이 있음을 말하고, 班名簿의 家口員을 〈對外的 家族〉이라 할만한 것이라 前提하여 논술을 해 왔다. 여기에 問題性이 있다 하는 것은 바로 3世代로 構成된 家族에 있는 것이다. 그 問題點을 說明하기 위해서는 濟州島의 民家 構造부터 약간의 說明을 할 必要가 있다. 濟州島의 民家は 一字型 家屋인데, 그 類型을 보면 〈圖1〉과 같이, (A) 한 울타리 안에 家屋이 한 채 있는 型 (B) 家屋이 두 채 (안거리와 박거리)가 있는 型 (C) 안거리와 모커리 두 채가 있는 型 (D) 家屋이 세 채 (안거리, 박거리, 모커리)가 있는 型으로 大別된다. 이 各類型의 家屋 各 채에는 방이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부엌이 꾸미어져 있어, 한 家族이 獨立 食生活를 營爲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

〈圖1〉 民 家 類 型



(ㄱ은 안거리, ㄴ은 박거리, ㄷ은 모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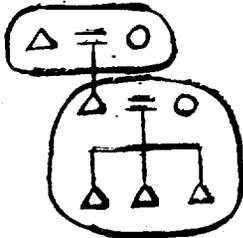
서 흔히 아들이 結婚하면 〈박거리〉나 〈모커리〉를 지어, 거기에 別居시켜 獨立生活을 하게 한다. 그러면 한 울타리 안에 두개의 家族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食生活의 共同與否를 基準으로 보면, 이 父母와 아들 부부의 別居, 獨立 食生活은 別個 家族이 形成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新婚家族은 子息을 낳고, 生計를 이을 만한 農耕地를 갖고 하여 獨立 經濟를 營爲할 만큼 될 때까지는 親族間의 義務나 部落內의 義務가 課해지지를 않는다. 말하자면 對外的으로 獨立家族으로 認定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에는 班名簿에도 父母와 同一家口員으로 되고 同一家口員으로 대접을 받으나, 經濟的인 獨立 段階에 이르면 이는 分離된다.

이러한 현상은 老境에 이르러도 나타난다. 자식들이 성장하여 모두 分家시키고 老부부 또는 어느 一方만이 남을 경우, 經濟的 獨立 能力이 없게 되면, 그는 아들의 家口員으로 들어오고, 對外的으로 모든 義務가 면제된다. 그러나 對內的으로 보면〈박거리〉나 〈모커리〉에 別居하면서 食生活만은 獨立하여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니까, 한 울타리 안의 〈안거리〉와 〈박거리〉에 父世代와 子世代가 居住할 때, A) 食生活 其他 經濟生活을 따로 따로 하여 對內的으로나 對外的으로나 別個 家族을 이루고 있는 경우, B) 食生活은 독립하여 營爲하나 對外的으로 독립 家族이 못되는 경우, C) 食生活도 共同으로 하여 實質的인 1個家族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셈이 된다. 이러한 경우, 대개는 父世代의 부부가 生存해 있을 경우는 A에 들어가고, 母一方만이 있을 경우는 B에 해당되며, 父一方만이 生存해 있을 경우에는 C에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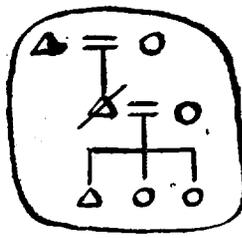
이러한 데에, 濟州島의 家族의 範圍 規定에 問題가 있는 것이다. 만일 食生活의 共同이라는 面만을 重視하여 家族을 잡아 나간다면 이 마을 平均家族數는 4人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요, 大部分 核家族으로 構成되어 있다고 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 該當되는 몇개의 代表的 家族의 事例를 <圖2>와 같이 들어 위의 事實의 理解에 資코자 한다.

<圖2> 3世代 構成家族의 類型 事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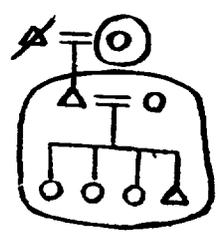
강 태 ○ 氏 家族
(住宅 C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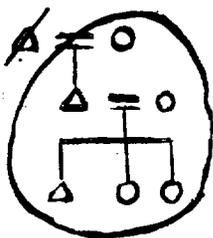
김 순 ○ 氏 家族
(住宅 A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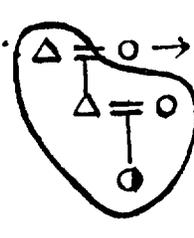
김 경 ○ 氏 家族
(住宅 C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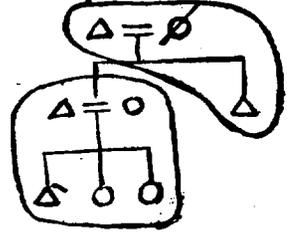
오 승 ○ 氏 家族
(住宅 A型)



김 용 ○ 氏 家族
(住宅 A型)



강 정 ○ 氏 家族
(住宅 C型)



(家族을 둘러가든 圓線은 食生活 獨立 한계선임)

家口の 增加는 分家에서 이루어진다. 分家は 結婚後 얼마없이 行해지고 있다. 分家를 할 때는 住宅 田地등의 財産相續이 따르기 마련인데, 相續制는 「信仰」節에서 論及하는 바와 같이 長男優越相續이며, 特히 祖上의 祭祀 負擔의 義務와 붙어 있는 <제월>田은 꼭 長男에게만 相續되고 있다. 따라서 祖上崇拜의 祭禮도 長男에게 負荷된다.

親族의 最小單位는 父系 8寸以內의 親族集團으로서, 이는 祖上崇拜 祭

禮를 共同으로 舉行하는 祭祀集團의 機能을 하며, 婚, 喪, 其他의 大事에
먼저 協同 助力하는 集團임은 他里와 같다.

其他 家族關係, 親戚, 姻戚, 外戚關係등 大部分이 道內의 一般的 慣習
과 大同하므로 그 詳述을 割愛한다.

方 言

指導教授	姜	根	保 (ㄱ4)
班 員	姜	榮	峯 (ㄱ4)
	金	碩	鎬 (ㄱ4)
	金	承	泰 (ㄱ3)

調査對象者

南濟州郡 安徳面 倉川里

姜 桂 彦 (男·44)	吳 昭 銀 (男·73)
吳 性 俊 (〃·25)	李 相 珍 (〃·58)
吳 連 俊 (〃·37)	姜 龜 桓 (〃·80)
金 德 丸 (〃·45)	吳 正 憲 (〃·37)
金 大 榮 (〃·42)	

차 례

I, 農	事	V, 馬	名
II, 婚	姻	VI, 風	名
III, 家	屋	VII, 潮	水 名
IV, 衣	服	VIII, 地	名

I 農 事

(1) 밭 이기다

開墾하다

(2) 밭 갈다

밭갈다

(3) 밭 갈이의 區分

① 웨벳지기~油菜, 보리를 條播할 적의 밭갈이

- ② 양벧지기~보리를 散播할 적의 밭갈이
- ③ 세벧지기~콩, 팥을 부종할 적의 밭갈이
- ④ 네벧지기~개간할 적의 밭갈이

(4) 잠대 : 밭잠대
쟁기

本島는 밭 農事를 主로 하여 보리·조·콩·팥·旱稻·과·모밀 等 作物이 栽培된다. 耕土가 火山灰土로 자갈들이 많아 쟁기의 구조도 이에 맞게 견고히 만들어진다.

(5) 쟁기의 部分名稱

- ① 멩에~멍애
- ② 솜미줄 : 솜비줄 : 한쉐 한줄~붓줄
- ③ 줍게~멍에 양편에 꿰어서 목 아래로 휘어다가 매게된 나무가지.
- ④ 줍게친~「줍게」를 태는 끈
- ⑤ 버올레~물주리막대
- ⑥ 오리목~버올레 양쪽에서 붓줄에 이어지고 까막머리에서 묶여지는 줄
- ⑦ 오리목메끈~「오리목」을 까막머리에 묶어 놓는 끈
- ⑧ 솜미줄코 : 선미줄코~붓줄고
- ⑨ 등래친 : 등래~한태
- ⑩ 망울 : 쉐망울~부리망
- ⑪ 부림패~밭갈이할 적에 오른 손에 잡아 소를 어거하는 긴 고삐
- ⑫ 가린석~쉐머리의 왼쪽에 씌워지고 밭가는 이의 왼손에 잡는 고삐
- ⑬ 양매머리·양주머리~쟁기의 손잡이와 운전의 구실을 겸한 橫木
- ⑭ 몽클~쟁기술
- ⑮ 벧~벧
- ⑯ 보섭 : 보섯~보습
- ⑰ 성애~성애
- ⑱ 설친~한다루

⑲ 돌뱅이뿔~까막머리

⑳ 종뿔~한마루 윗쪽에 찌른 나무조각

㉑ 벧칼 (ㄱ), 쟁기의 벧에 붙은 흙을 긁어 내리우는 칼 모양의 나무조각. (ㄴ), 쟁기술에 벧을 고정시키는 칼 모양을 한 두개의 나무조각.

㉒ 벧톨레~「벧톨레친」에서 「베바드랭이」에 켜여지는 긴 막대기.

㉓ 벧톨레친~쟁기술과 성애에 매여 있는 끈

㉔ 벧메코~벧 뒷면의 웨코

㉕ 벧바드랭이~벧의 뒷면을 받치니 한쪽으로 뒤틀리지 않게 한마루 아래 부분에 박은 나무조각

(6) 陸地部 쟁기와 의 形態의 차이

첫째 「양지머리」가 장기술의 윗쪽에 70cm길이의 橫木으로 따로 박아 만들어져서 左右로 잡게 되어 있다. 이 橫木이 손잡이와 자부지의 구실을 함께 한다.

둘째 「부림패」와 「가린석」이라는 두개의 고편이 左右에 있어 이것으로 마소의 動作을 어거한다.

세째, 보습위에 한마루에 의지하여 벧을 엮히는데 받치고 트는 것이 복잡하나 흙이 한쪽으로 잘 떨어지게 되었다.

○ 흘쉐역지기

하루같이 에 해당하는 넓이의 밭 約 700평을 말한다.

○ 두쉐역지기~約 1,400평 넓이의 밭

○ 흘말지기~1斗落의 밭 150평

(7) 조블리다~조(粟) 파종하다.

조(粟)나 발벼를 파종할 적에는 갈아서 씨앗을 뿌린 다음 북토겸 흙을 짚짚하게 마소의 발로 「블리다」(밟힌다). 마소의 수는 형편에 따라 다르나 數十頭의 마소에 4~5人의 牧夫가 앞뒤에 서서 밭 구석구석을 몰고 밟히는데 이 때 「발 블리는 소리」는 좁쌀에 依支하여 살고 발벼로서 祖上을 섬기던 島民生活의 고달픈 面을 엿보게 한다.

(8) 밭 불리는 소리~파종하는 밭에서 마소를 물며 부르는 노래.

○ 초불에 갈다

一回의 갈이로 파종하다.

○ 두불에 갈다.

一回의 밭갈이를 한 다음 얼마동안 지나서 二回의 갈이로 파종하다

(9) 밭 우하다.

파종이 끝난 다음 雜草를 除去하고 씨를 묻다.

(10) 푸지게질 한다.

(ㄱ) 쑥게를 쑥다.

(ㄴ) 긴 나무가지를 여러개 부채形으로 엮어서 쑥게를 만들고 사람이 나 마소로 끌어 흙을 덮는다. 보리를 파종한 다음에 많이 쓴다.

(11) 수누렁메다.

품을 주고 받고 하여 除草하다.

○ 초불검질~第一次의 除草

○ 두불검질~第二次의 除草

(12) 사땃소리

(ㄱ) 김 매는 노래

(ㄴ) 여러 사람이 한 패가 되어 조밭, 콩밭 等 김을 매며 부르는 노래로 節마다 「에헤 - 사대 - 」로 끝나 「사땃소리」라 한다.

(13) 걸름내다

돼지우리에 있는 거름이나 외양간에 있는 두엄을 밖으로 내놓아 밭에 운반할 때까지 一時 쌓아 두는 것.

○ 돛걸름~돼지거름

○ 췌걸름~쇠두엄

(14) 교랑꿀 놓다.

밭교랑에 씨앗 서너 개씩을 집어 놓다.

보리를 파종할 적에 씨를 뿌리고 간 다음 보리 씨앗에 재(灰)를 섞

어 밭고랑에 再次 点播한 後 복토를 한다.

(15) 마실 들다.

(ㄱ) 秋收期가 되다.

(ㄴ) 가을이 오다.

○ 마실하다~秋收하다.

(16) 질매

길마

(17) 길마의 部分 名稱

① 앞가지~앞가지

② 뒷가지~뒷가지

③ 삽게 : 고들게~경꺼리막대

④ 삽게찢 : 고들게찢~경꺼리끈

⑤ 소용~둥어리막대

⑥ 소용구멍~둥어리막대를 찢른 구멍

⑦ 오랑~뜸새끼

⑧ 도곰~겉언치

⑨ 등태~등태

⑩ 두물~길마의 앞가지와 뒷가지를 고정시키는 두 개의 나무조각

⑪ 웨앗배-엷배~복두

(18) 도깨

도리깨

(19) 도리깨 部分의 名稱

① 어시~장부 : 5尺 길이의 단단한 막대기

② 툄레~도리깨 꼭지. 장부의 윗 부분에 뚫린 구멍에 꿰여지는 約 3尺 길이의 휘초리

③ 도깨아들~아들. 턱이 있는 두 개의 휘초리로서 「툄레」에 감기고 위로 부터 中間까지는 「툄레」를 사이에 놓아 줘, 다래넝클 等으로 편평하게 묶어 벗어나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 陸地部 도리깨의 만드는 방식

과는 다른 수법이다.

(20) 방애지다.

(ㄱ) 방애~방아
지다~짚다.

(ㄴ) 방아 짚다.

(21) 방아의 區分

① 물방애 : 물고래 : 물방이=물그레~연자매

② 남방애 : 남방이~큰 통나무를 파서 만든 걸구. 두 사람이 마주 서서
계집질을 하며 짚는다. 보리, 밭벼 等도 勿論 짚으나 山間部落에서는
많이 耕作하는 피(稷)를 주로 짚는다.

③ 도고방애~돌질구

(22) 마래

맷돌

○ 마랫방석 : 들래방석~맷방석

○ 마래뜨다~맷돌질을 하다. 보리는 연자매에서 껍질을 잘 벗겨 말
린 다음 맷돌에서 갈아 태겨지고 쌀알이 두 개로 쪼개여지게 한
다. 메밀은 몇 번 반복하여 맷돌에서 갈아 껍질을 벗긴 다음 마브
닥 가루로 만든다.

○ 모밀 겁하다~메밀을 맷돌에서 갈아 껍질을 벗겨 거칠게 하다.

(23) 풀마래~물에 불린 쌀을 가는 맷돌. 형태가「마래(맷돌)」와 비슷하
나 맷돌의 밑작이 윗작보다 크며 높아 臺가 되었으며 주위가 파지어
옆에 달린 주둥이로 물이나 간 것이 흘러내리게 만들었다

○ 마래후~확, 돌확

○ 마랫초록~맷손

○ 마랫착~맷들의 위 아래작

(24) 마래마는 소리

맷돌질하며 부르는 노래. 農家에서 除草가 끝날 무렵이 되어가면
밤마다 「마래마는 소리」가 들린다. 얼마쯤 있으면 牧草를 베게 되어

또 바깥 터이니 除草를 마친 後의 여가를 내어 낮에는 연자매에 보리를 쪄고 말렸다가 밤에는 마당에 멍석 위에 맷방석을 깔아 맷돌에 보리를 대끼는 것이다. 봄이 올 때까지의 양식 준비이니 피로도 잊은 듯이 밤이 깊도록 노래를 부르며 맷돌질을 한다.

(25) ㄹ을 ㄹ다.

콩, 메밀 등을 맷돌에서 갈거나 연자매에서 쪄어 가루로 만든다.

(26) ㄹ을 ㄹ다.

쌀, 콩, 메밀 등을 연자매에서 쪄어서 가루를 만든다. ☞

II 婚 姻

(27) 중진놓다.

남자쪽에서 仲媒人을 女子쪽에 보낸다.

○ 중진에비~仲媒人

(28) 이버지

(ㄱ) 이바지

(ㄴ) 婚姻날의 하루나 이틀전에 新郎집에서 新婦집에 보내지는 飲食物 生活程度에 따라 飲食物의 量은 달리 하나 돼지 1마리, 달걀 30~50개 술(酒) 1樽, 닭 2마리 程度가 흔히 보내진다. 8, 15 解放前까지만해도 이 習俗이 거의 行해졌었다.

○ 이버질 받다.

신부집에서 飲食物을 받다.

○ 이버질 보내다

新郎집에서 飲食物을 신부집에 보낸다.

(29) 가문잔치

婚日 前夜에 婚家에서 베푸는 잔치.

집안과 문중 사람들이 모이는데 술과 돼지고기 반기가 고루 나누어 진다.

(30) 흥새우시

婚姻날에 新郎쪽에서 「흥새합」을 신부 쪽에 드리기 위하여 보내지는 上客. 新郎과 親等 가까운 윗 行列에서 당한다.

- 흥새합~納幣文과 무명을 넣어 붉은 보로 싼 함
- 흥새미녕~「흥새합」에 넣어지는 무명

(31) 사돈잔치

婚姻한 다음날 新郎의 父나 兄이 신랑, 신부와 함께 若干의 飲食物을 가지고 새 舍家로 가서 사돈간에 人事를 나눈다. 그 다음날은 신부쪽에서 亦是 새 사돈집에 와서 祝賀 答禮하는 것을 일컫는다. 중진(仲媒)으로부터 始作되는 結合의 절차는 「사돈열맹」으로 다 끝난다.

(32) 사돈열맹을 호루에 하다.

査頓間에 인사 나누기를 당일에 끝내다.

(33) 올리친십

올리~오리(木雁), 친십~친영(親迎)

- 올리친십하다.
- 奠雁 親迎을 하다.

(33) 새시방 돌아메다.

혼인날 저녁 洞內 젊은이들이 婚家에 모여 노래와 춤으로 祝賀의 뜻을 표하고 더욱 부부의 情이 금실갑기를 바란다는 이유로 新郎을 퐁퐁 묶어 매달아 놓고 발바닥을 후려친다. 한참 후에 신부가 묶은 끈을 풀고 음식 대접으로 밤 늦게 끝난다.

- 새시방 새각시가 말갯다.

신랑 신부가 이야기를 주고 받다.

仲媒結婚이어서 서로 만난다거나 이야기를 주고 받는 일이 없다. 洞內 젊은이들이 매다는 기회에 처음으로 서로 마주 보게 되고 또 이야기를 나누게끔 주위에서 만들어 對話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대단한 일로 여겼던 때이었다.

(35) 시집이 가다.

(ㄱ) 媿家에 가다.

(ㄴ) 女子가 結婚하더라도 媿家에서 男便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親家에서 結婚前과 마찬가지로 지내는데 媿家에는 祭日이나 其他 집안 일이 있을 경우와 農繁期 秋收期等에 3~5日間 머무르면서 助力할 뿐이다. 結婚生活에서 이런 時期를 「가명 오명 홀 때」(媿家와 親家를 번갈아 가며 사는 時期)라고 말하고 이런 상태로 2~3年間 지내다가 세간 내게 되어 親家를 떠난다.

○ 세간 살다.

세간 내다.

부부가 함께 살다.

○ 세간 갈리다.

같이 살던 부부가 서로 헤어지다.

○ 시집이 강 살다.

시집살이하다.

(36) 즈운사위

(ㄱ) 즈운~자원

사위~사위(婿)

(ㄴ) 女子쪽에서 자원하여 맞이하는 사위

○ 즈운사위하다

여자쪽에서 願하여 사위로 삼다

(37) 두갯싸움

남편과 아내의 싸움

○ 두갯 처령 살다.

아내를 맞아 살림하다.

Ⅱ 家 屋

(38) 달귀지다.

(ㄱ) 封填할 적에 역군들이 달궂대를 들고 쌓아지는 흙을 다지는 것.

(ㄴ) 凶兆가 있다는 집터에 집을 지을 적에 洞內 壯丁들을 動員시켜 저녁부터 밝을 녘까지 집터를 다지는 것.

(ㄱ), (ㄴ)의 경우 모두 「달귀짓는 소리」를 부르는데 (ㄴ)의 경우는 「달귀짓는 소리」가 높고 요란스러울수록 凶兆가 가신다는데서 밤새도록 飲酒, 歌聲이 그칠 줄을 모른다.

(39) 고디 올리다 : 고디홍 올리다.

산자와 띠 사이에 흙을 깔다.

(40) 성주 내리우다.

성주 반이를 하다.

(41) 집 일다.

띠(茅)로 지붕을 덮고 줄로 엮어매다.

늦가을에 띠를 베고 짧은 띠로 줄을 드리는데吉日을 택하여 二年에 一回씩 덮는다. 줄을 드리는 연장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호롱이~줄을 드리는 기구

○ 호롱이판~윗 쪽에 난 구멍에 줄을 드린 양 가닥을 꺾어 돌리게 된 나무.

○ 뒤치는 거~줄이 드러지게 뒤에서 돌리는 기구.

(42) 조왕

(ㄱ) 부엌

(ㄴ) 술을 건 주위

○ 조왕할망~부엌을 맡은 女神.

祭祀가 끝나면 「조왕」에 그 祭物을 조금씩 걸어 버린다.

○ 조왕계

부엌을 맡은 女神에게 드리는 祭.

○ 고평~고방

집안에 祭祀가 끝나면 「조왕」에와 마찬가지로 그 祭物을 조금씩
걸어 「고방」구석에 버린다.

(43) 굴목짓다.

구들방의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

장작등으로 때는 경우도 있으나 거의는 牧場이나 放牧했던 들판에서 주
어 모아 말리었던 牛馬糞이나 보리 打作할 적에 까끄라기를 모아두었다
가 이로써 땀다. 勿論 겨울철 아침 저녁 때는 산테기로 半 以上이 牛馬
糞을 아궁이에 밀어 넣어 지피면 구들 아래목은 따뜻하다.

○ 불구주네~아궁이에 燃料인 牛馬糞이나 까끄라기를 밀어 넣는 기구

○ 불치~아궁이에서 연료가 탄 재

(44) 구들놓다.

(ㄱ) 방 놓다.

(ㄴ) 幅과 높이가 各 一尺半에 길이 約 五尺의 炕洞을 만든 다음 구들
장을 덮어 방바닥을 만든다. 이 炕洞에 牛馬糞을 밀어 넣어 지피
는데 연통은 없다.

○ 구들틀~구들장

(45) 복덕방

(ㄱ) 방바닥을 만들지 아니하고 짚이나 검불을 깔고 居處하며 짚신 等
을 삼는 作業場을 겸하는 방

(ㄴ) 방바닥을 만들었어도 도배를 하지 아니하고 짚이나 검불을 깔고
居處하는 방

○ 복덕방에 살다.

도배를 아니한 방에서 지내다.

방을 놓지 아니하고 지내다.

(46) 봉덕불

「복덕방」中央에 흙과 돌을 화로 같이 쌓아 장작이나 쉰나무를 때어 추

· 위를 견디는데 火田民의 生活이나 山間部落에서 行해졌었다.

(47) 고랑케

「고랑케구들」과 마루 사이에 부엌으로 통하는 빈 간 (間)

(48) 고랑케구들 : 맞구들

부엌 앞에 있는 구들

(49) 쳇방

부엌과 마루 사이에 있는 마루방으로 食事을 主로 하는 방

(50) 재창문 : 호령문

마루방 문과 구들 창문 사이에 있는 작은 문

(51) 개취 : 개워

집채의 둘레에 쌓은 돌담²윗 부분

○ 개취에 독이 안다.

처마밑 담위에 닭이 앉다.

(52) 울담 : 우갯담

집터의 주위에 둘러 쌓은 담

○ 울담이 썩러지다.

울타리가 무너지다.

(53) 울타리 內의 家屋 區分

① 안거리~안채

② 박거리 : 밧거리~바깥채

③ 모거리 : 목거리~결채

④ 쉼왕~쉼마귀 : 쉼막사리~외양간

바깥채나 결채의 1~2間을 외양간으로 使用하든지 따로 짓기도 한다.

(54) 정남 : 정살

집으로 들어오는 어귀에 大門 대신 나무를 양쪽에 세우고 이를 의지하여 가로 걸쳐 놓은 긴 나무.

사람이 집에 없거나 밤에는 他人의 마소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나무를 걸쳐 놓는다.

(55) 올래

(1) 오래

(2) 집으로 들어오는 어귀에서 부터 마당에 이르는 좁은 통로.

○ 먼올래

거릿길에서 골목길로 들어온 구역

Ⅳ 衣 服

(56) 갈옷 : 감옷

감물(柿汁)을 들인 옷을 통틀어 감옷이라 이른다.

무명을 천으로 하여 中衣, 赤衫, 잠방이, 등거리 등을 필요에 따라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八月에 접어들면 감(柿)을 따서 그 물(汁)을 들이고 約 한달가량 별에 바래어 黃土色이 되면 입게 되는데 이를 갈중의, 갈적삼, 갈잠뱅이, 갈등거리라 한다. 年中 唯一한 作業服으로 하절에는 通常服을 겸하게 되는데 한벌의 「갈중의」, 「갈적삼」이면 二年間은 作業服 缺정이 없는 것 같다.

○ 갈독지~감물을 들인 적삼

○ 굴중이바람~女子가 치마를 아니 입고 다니는 것을 알보아 이르는 말

○ 갈옷 벗는 날이 었다.

一年내내 農家에서는 감들인 옷을 벗는 날이 없다.

(57) 가죽옷

짐승(소, 노루, 너구리, 개)의 털가죽으로 만들어진 두루마기형의 防寒服이다. 漢孺山麓에서 生活하던 火田民이나 豹獵이 한창이던 때에 사냥꾼 그리고 牧畜人들이 冬季 積雪時에 山野에 放牧한 마소를 찾으러 다닐 때 입었던 옷이다.

이와 같은 防寒具로는 「가죽옷」과 같은 材料를 가지고 半月形으로 만들어진 「가죽감티」(防寒帽)와 「가죽보선」(가죽으로 만든 버선)이 있었다.

牧畜人들에게는 이 세가지 방한구는 필수품으로 여름철 保管에 特別히 用心한다.

(58) 짚신 : 짚신 : 짚세기 : 초신
짚신

(59) 짚신의 種類

- ① 비빔짚신~총을 따로 만들어 놓고 삼을 적에 이어 놓은 짚신
- ② 뽕짚신 : 붓짚신~신을 삼으면서 총을 내어 만든 짚신.
- ③ 껌신~쇠가죽으로 총을 한 신
○ 새짚신~엄짚신

(60) 짚신의 部分 名稱

- ① 신치기~신 뒤축
- ② 엄줄기~뒤쪽총과 뒤축 사이에 있는 굵은 총
- ③ 신놀~신날
- ④ 신들~신들메
- ⑤ 신들갱이~당감잇줄
- ⑥ 짚~총
- ⑦ 뒷짚~뒤쪽에 있는 총
- ⑧ 앞짚~앞쪽에 있는 총
- ⑨ 신갱이~신울에 감은 찰. 왕골껌질.

(61) 짚신 삼는 用具名.

- ① 신클~신틀
- ② 응클~신틀 판대기에 끼운 기둥
- ③ 차세~삼을 적에 쓰는 칼 모양의 나무조각
- ④ 신꼬지~총을 이을 적에 쓰는 송곳 모양의 나무조각
- ⑤ 막끼~방망이
- ⑥ 섭죽~신을 삼은 다음 신울을 곱게 다듬는 나무조각
- ⑦ 앞꼴~앞골
- ⑧ 뒷꼴~뒷골

⑨ 세감~앞골과 뒷골 사이에 끼는 빼기 구실을 하는 나무조각

(62) 옷의 各 部分 名稱

- ① 앞섶~앞자락
- ② 도련~도련
- ③ 허리~허리
- ④ 주름~주름
- ⑤ 글쟁이또~중의의 허리 오른쪽에 뚫인 구멍
- ⑥ 어깨마리~치마의 허리로부터 어깨에 이르는 부분
- ⑦ 단~단
- ⑧ 득지~어깨
- ⑨ 목고디~떡
- ⑩ 꿰와~호주머니
- ⑪ 미~두루마기의 좌우에 댄 띠 폭
- ⑫ 우머니~도포, 상재의 웃옷 等에서 소매의 넓은 부분.
- ⑬ 깃바데~깃바데
- ⑭ 깃~깃
- ⑮ 동전~동정
- ⑯ 이몸~저고리, 적삼의 앞면과 뒷면을 통틀어 이름
- ⑰ 굴~중의의 다리 부분의 폭
- ⑱ 스미~소매
- ⑲ 질스미~소매부분
- ⑳ 젓곰~옷 안에 있는 고름
- ㉑ 골름:곰~고름
- ㉒ 제깁이~겨드랑이
- ㉓ 깃바데~웃옷 겨드랑이에 붙이는 형집.

V 말(馬)의名稱

말은 毛色에 依하여 優劣의 等級이 매겨지고 名稱이 各各 다르다.

① 가라말~가라말

- 먹가라말~眞黑色馬
- 추가라말~茶褐色을 띤 검은 말

② 청총말 : 청초마 : 청총매 : 청총이~靑驄馬

- 白청총~부루마 (白馬)
- 黑청총~검은 빛이 조금 섞인 총이말

③ 적다말~절따말 (赤多馬)

- 고치적다~赤色馬
- 초적다~갈기와 총이 흰 淡赤色馬
- 구렁적다~조금 검게 보이는 절따말

④ 유마말~유마 (濁色馬)

- 즈류마~赤濁色馬 갈기 총이 黑色.
- 가문유마~黑濁色馬
- 브은유마~黃濁色馬

⑤ 월라말 : 올라말 : 월베말~워라말

- 가라월라~黑白斑이 있는 말
- 적월라~黑赤斑이 있는 말

⑥ 저울마~주둥이가 흰 말

⑦ 함부리~입술로부터 입안까지 흰 말

⑧ 쌀쪽백이~발(足)하나가 흰 말

⑨ 부르마~흰 빛에 붉은 점이 있는 말.

⑩ 코간전이~이마에서 코까지 흰 줄이 있는 말.

⑪ 왕간전이~이마에서 코까지 흰 줄이 크게 있는 말.

VI 風 名

- 셋 바람 ~ 東風
서가리 : 갈보름 ~ 西風
마곰름 : 마보름 ~ 南風
꿈은하늬 : 하늬 보름 ~ 北風
東하늬 ~ 北北東風
늬새 ~ 北東風
서하늬 ~ 北西風
섯마 ~ 南西風

VII 潮 水 名

- 陰 十五日 일곱물
" 十六日 여(으)둑물
" 十七日 아홉물
" 十八日 열물
" 十九日 열흔물
" 二十日 열두물
" 二十一日 아끈철키
" 二十二日 한철키
" 二十三日 부날
" 二十四日 혼물
" 二十五日 두물
" 二十六日 세물
" 二十七日 네물
" 二十八日 다섯물
" 二十九日 여(으)섯물

陰 一日	일곱물
〃 二日	여(으)덥물
〃 三日	아홉물
〃 四日	열물
〃 五日	열흔물
〃 六日	열두물
〃 七日	아끈채기
〃 八日	한채기
〃 九日	부날
〃 十日	흔물
〃 十一日	두물
〃 十二日	세물
〃 十三日	네물
〃 十四日	다섯물

VII 地 名

1. 田 野 名

- | | |
|-------------|-----------|
| (1) 송골왓 | (2) 어음 |
| (3) 명나현 (형) | (4) 물마농굴 |
| (5) 숲비나리 | (6) 진근드리 |
| (7) 군낭케 | (8) 내즈숨 |
| (9) 하원밭 | (10) 쇠뭇도 |
| (11) 개난도 | (12) 종깃뱅디 |
| (13) 죽쟁이구석 | (14) 냇새왓 |
| (15) 왕주굴 | (16) 개세미 |
| (17) 비떡밭 | (18) 우너밭 |
| (19) 물건밭 | (20) 종남굴 |

- | | |
|------------------|-------------|
| (21) 동털 | (22) 더드르 |
| (23) 거린돌 | (24) 새장밭 |
| (25) 새드리쳐남 | (26) 고송모기 |
| (27) 므르갓도 | (28) 왕생이구석 |
| (29) 올밭 | (30) 냇바람 |
| (31) 찬남밭 | (32) 굽덩밭 |
| (33) 삼박구석 | (34) 작대기굴 |
| (35) 토목이왓 | (36) 돌밭 |
| (37) 혼든서리 | (38) 사랑이밭 |
| (39) 이웃밭 | (40) 자미빌레 |
| (41) 나미머들 | (42) 망밭 |
| (43) 난드르 | (44) 원당밭 |
| (45) 영밭 | (46) 섯훗밭 |
| (47) 가메왓 | (48) 물경밭 |
| (49) 독밭 | (50) 즈비남생이작 |
| (51) 물머릿도 | (52) 큰풍낭알 |
| (53) 토목이왓 (토맥이왓) | (54) 영아리쿨 |
| (55) 송굴왓 | (56) 호미지왓 |
| (57) 남이머들 | (58) 비지남밭 |

2. 山岳 峴名

- | | |
|-----------|------------|
| (59) 군산 | (60) 뽕기오름 |
| (61) 동오름 | (62) 개남산 |
| (63) 김악 | (64) 중망이동산 |
| (65) 물동산 | (66) 감터동산 |
| (67) 신산오름 | (68) 물오름 |
| (69) 평망동산 | (70) 처남동산 |
| (71) 고는오름 | (72) 남당물동산 |

(73) 칩동산

(75) 고본지마루

(77) 매군데

(79) 감터동산

(74) 당동산

(76) 북쟁이마루

(78) 도고리동산

(80) 머구낭동산

3. 垆地, 洞, 沼名

(81) 배엎바리

(83) 제모뜰

(85) 성근못

(87) 불칸터

(89) 고냉이소

(91) 독밭소

(93) 세그정물

(95) 선낭터

(82) 배우못

(84) 거슨물

(86) 땃그루

(88) 안우영

(90) 옥반물

(92) 고냉이소

(94) 물물

禁 忌 談

指導教授	金 榮	敦
班 員	梁 祚	勳 (子4)
	康 禎	姬 (子3)
	姜 榮	鍾 (子1)

調查對象者

南濟州郡 安德面 倉川里

李 起 淑 (女·74)	李 春 子 (女·37)
李 辛 生 (女·52)	金 龍 潤 (男·65)
吳 漢 範 (男·46)	元 素 烈 (女·70)

차 례

- | | | |
|-------------|---------|------------|
| 1. 通過儀禮 | | 34. 女人舉止 |
| 11. 出 產 | | 35. 氣象關係 |
| 111. 妊 娠 | 娠 產 後 兒 | 36. 農事關係 |
| 112. 出 產 | | 37. 疾病關係 |
| 113. 產 育 | | 4. 歲時舉動 |
| 114. 婚 姻 | 婚 亡 禮 禮 | 41. 正 月 |
| 12. 婚 姻 | | 42. 二月~十二月 |
| 13. 死 亡 | | 5. 衣食住 |
| 131. 葬 禮 | | 51. 服 飾 |
| 132. 祭 禮 | | 52. 飲 食 |
| 2. 一日舉動 | | 521. 食 事 |
| 21. 早 朝 | 朝 間 寢 | 522. 飲 食 |
| 22. 夜 間 | | 53. 居 住 |
| 23. 就 寢 | | 531. 住 宅 具 |
| 3. 日常舉動 | | 532. 家 具 |
| 31. 日 常 生 活 | 生 活 關 係 | 6. 動植物 |
| 32. 身 體 關 係 | | 61. 動 物 |
| 33. 對 人 關 係 | | 62. 植 物 |

1. 通 過 儀 禮

11. 出 産

111. 妊 娠

- ◎ 아기 뱀 여즈 불난디 (꽃난디) 구경 하지 말라. (아기가 화답본다. 아기가 겁날 해롭다.)
- ◎ 아기 뱀 여즈 놈 송보지 말라.
(아기가 그처럼 뒹여 버린다)
- ◎ 아기 뱀 여즈 철리항는디 디리보지 말라. (아기가 놀란다)
- ◎ 아기 뱀 여즈 화리 넘지 말라. (해롭다)
- ◎ 아기 뱀 여즈 냉수로 모욕하지 말라. (쑥물로 모욕하여사 혼다)
- ◎ 아기 뱀 여즈 아래 꿀암 앓지 말라. (그 여즈 몸 무겁나)
- ◎ 아기 뱀 여즈 물줄을 그냥 넘지 말라. (아기 얼른 낳지 아니혼다)
- ◎ 아기 뱀 여즈 췌 매여난 머리에 오줌 녹지 말라. (아기가 뇌치름
흘린다)
- ◎ 아기 뱀 여즈 집의서 독 잡지 말라.
- ◎ 아기 뱀 여즈 강이 먹지 말라. (아기가 췌와문다)
- ◎ 아기 뱀 여즈 독게기 먹지 말라. (아기 허벅다리에 독술 난다)
- ◎ 아기 뱀 여즈 도새기게기 먹지 말라. (아기 경징 난다)

112. 出 産

- ◎ 아기 낳 때 여러 사람안티 알리지 말라. (얼른 안 난다)
- ◎ 아기 낳 때 멩줄이 아기 모가지에 걸려지민 안된다. (스주가 나쁘다)
- ◎ 아기 낳 때 배똥줄을 쭈르게 끊으지 말라. (오줌이 좇다)
- ◎ 갓난 아기 패라운 사람이 잡지 말라. (아기도 패라운다)
- ◎ 첫아기 난 때 아기에명 앞의서 짓난다, 아니 난다 곧지 말라. (짓

잘 안난다)

◎ 할망이 웨손지안티 것 물리지 아니한다. (성손지안티 물리민 것나와도 웨손지안티 물리민 것 안나온다)

◎ 아기 난 때 아기 조쟁이 빨지 말라. (조식이 끊어진다)

◎ 아기 난 앞의서 종이나 지성귀 박박 찢지 말라. (아기 똥 잘 편다)

◎ 스나이 귀호 집안의서 스나이 나민 사름덜안티 알류지 말라. (알류지 말아사 오래 산다)

◎ 아기 난 여즈 첫밥 먹을 뻬 밥 잘 늦들영 먹어사 혼다. (아기 머리가 일어산다)

◎ 아기 난 여즈 독케기 먹지 말라. (독은 것이 엇이난 것이 안난다)

◎ ㄴ쁜 집의서 ㄴ쁜 해에 두 여즈가 아기 낳지 말라. (호 아긴 잘 크지 못한다)

113. 產 後

◎ 아기 난지 사흘 안에 동녕 안준다. (아기 복 나간다)

◎ 아기 난지 사흘 안에 속절 혼민 안된다. (아기가 패라와지거나 췌견다)

◎ 아기 난 다음 일뤼 안에 집 고치지 말라. (동티난다)

◎ 아기 난지 일뤼 안에 내 넘어 온 사름, 부정호 사름 들여놓지 말라. (새가 부튼다)

◎ 아기 난지 일뤼 안에 먹을 것을 굶거나 보끄지 말라. (아기안티 헤뜰 헤뜰 허멀, 두드레기가 난다)

◎ 아기 난지 일뤼전에 못질, 툽질호지 말라. (아기가 성질이 나빠진다)

◎ 아기 난 여즈 아흐레 뉘기 전에 멘경 보지 말라.

◎ 아기 쇠수호여난 물 찰락 비우지 말라. (솔짜기 비와사 녀나지 아니한다)

◎ 아기 먹당 남은 것은 꼭 나는 물에 강 비와 불라. (송 된다)

114. 育 兒

- ◎ 어린아이 멘경 뵈우지 말라. (어멍 돌룬다)
- ◎ 어린아이 상가달 넣기지 말라. (어린아이 지레 안 큰다)
- ◎ 어린아이 뒷머리 꺾게 말라. (아방 늦이 온다)
- ◎ 어린아이 올멍 아방 불르민 좋지 아니하다. (올멍 어멍 불러사 혼다, 아이 웨로와 진다)
- ◎ 어린아이 배 입대영 불지 말라. (배 나온다)
- ◎ 어린아이 땅 파민 굿다. (아기 아프나 죽으나 혼다)
- ◎ 아기 화릿불 넘지 못하게 하라.
- ◎ 어린아이 갓 씨와 주지 말라. (크지 아니혼다)
- ◎ 어린아이 담배 피우게 말라. (짱 삭은다)
- ◎ 늬의 집 큰일 치른 음식은 어린아이안티 몬저 맥이지 말라. (웃사 림부터 몬저 먹나)
- ◎ 어린아이안티 굿혼 집 떡 맥이지 말라. (귀신 부뜬다)
- ◎ 시리에 남은 브시래기 어린아이 먹게 말라.
- ◎ 아기 웃뇌부터 몬저 나민 멩 쭈룬다.
- ◎ 벤소에 아이 빠지우지 말라. (웨깐다)
- ◎ 아기안티 좋은 말만 하지 말라. (좋지 아니혼다)
- ◎ 씨누이 성제 즈석은 ㄴ찌 못 질룬다. (두 동세 즈석은 ㄴ찌 질뤄겨도)

12. 婚 姻

- ◎ 새 각씨 베개나 이불 속에 티 들게 하지 말라. (부뷔가 자주 싸움혼다)
- ◎ 새 각씨 베개 팔재 썬 사름 줍지 말라. (좋지 아니혼다)
- ◎ 잔칫날 새 각씨 울지 말라. (잘 못산다)

- ◎ 잔칫날 새식방 들어올 때, 새각씨 나갈 때 질카르지 말라.
- ◎ 잔칫날 친정어머는 귀께 우회 소금 뿌령 돌아보지 말라.
- ◎ 잔칫날 씨집 간 새각씨 안테레만 보아사 한다. (안테레만 본 새각씨 잘 살곡, 배곶테레만 본 새각씨 잘 못산다)
- ◎ 잔칫날 비질항지 말라. (썰어가 버리는 거난 손해본다)
- ◎ 잔칫날 그릇 벌르지 말라. (살럼 깨여진다)
- ◎ 잔칫날 솟 벌러지게 말라. (살럼 안된다)
- ◎ 씨집 강 메칠동안 새각씨 마리 출입 말곡 정지로 출입항여사 한다.
- ◎ 잔칫날 비름 불지 말아사 한다. (살럼이 굿다)
- ◎ 아시가 성보단 몬저 장개가지 말라. (집안 망한다)

13. 死 亡

131. 葬 禮

- ◎ 사름이 원 못 풀엄 죽으면 죽엄 눈 못 감나.
- ◎ 호상옷 맹글 때 딱작 지우지 말라. (죽음이 딱음 풀어지게)
- ◎ 시신(屍身) 옷 입형 옷곰 맬 때 딱작 지우지 말라. (죽음이 딱음 풀어지게)
- ◎ 죽은 사름 우회 눈물지민 굿나. (우는 소리가 죽은 사름 여이엔 쉼 울음 소리로 나쁘게 들린다)
- ◎ 영장 난 방에 고벵이 기여들게 말라. (송장이 일어산다)
- ◎ 판 우회 고벵이가 지나가민 판이 일어사저나 판이 운다.
- ◎ 동네에 큰구실홀 뻬 꼭항지 말라. (아기 송본다)
- ◎ 장난 집의서 성복 전에 상 받지 말라.
- ◎ 영장 억질로 매여가지 못한다. (가지 기려운 영장은 활활 나가곡, 가지 실픈 영장은 영 나가지 아니한다)

- ◎ 영장 나갈 때 질카르지 말라. (좋지 아니하다)
- ◎ 영장 나갈 때 계수 지낼 사름 보지 말라. (생영장 보민 일땀 비리 꼭 천리장 보민 사름 비린다)
- ◎ 동네 좋은 일 서도 상젠 나 멩기지 말라. (첼인 몸이난 그르치카브 뵈 가지 안흔다)
- ◎ 동네에 영장 난 때 성복하기 전에 머리 빗지 말라. (죽은 이가 저 상 가민 머리 빗꼭 따라운뵈 말흔다)
- ◎ 동네에 영장 난 때 바느질 하지 말라. (ㄴ짜 굴랭 하영 재계 죽나)
- ◎ 동네 장스 나민 스답 하지 말라. (귀신이 부튼다)
- ◎ 봉분에 물들게 말라. (죽은이 물에 즐기난 승시난다)
- ◎ 산(墓) 우희 불 부치지 말라. (첼 짓인다)
- ◎ 상제 색옷 입지 말라. (정성 하여사 하난)

132. 祭 禮

- ◎ 식계 전날 머리 빗지 말라.
- ◎ 식곶칩의 개고기, 톨첼기 먹영 가지 말라. (비린다)
- ◎ 계수 음식에 머리터럭 시민 나쁘다. (신강<神降>아니 하난)
- ◎ 계수 지낼 때 아기 울리지 말라.
- ◎ 계숫날 꾀냥 소제 하지 말라. (집안에 부정탄다. 재수 엇나)

2, 一 日 舉 動

21, 早 朝

- ◎ 아침의 웨상 안 준다. (재수 엇나)
- ◎ 아침의 바농 풀지 말라.
- ◎ 아침 일찍 봉스 만나지 말라. (재수 엇나)
- ◎ 아침의 놀래 하지 말라. (가난 하여진다)

- ◎ 아침의 신을 엮어 놓지 말라. (재수 잇나)
- ◎ 아침의 거미 보민 재수 좋지만 밤의 본 거민 죽여사 한다.
- ◎ 지깃물로 식수하지 말라. (즈주 울게 된다)
- ◎ 혼 대양에서 들이 식수하지 말라. (싸움난다)
- ◎ 식수할 때 물 하영 썬지 말라. (저영 가민 그 물 다 먹여사 한다)
- ◎ 소시 (巳時)에 머리 근치지 말라.

22. 夜 間

- ◎ 밤의 손콧·발콧 까끄지 말라. (손콧에 피가 보이난 ㅁ슴탄다. 멩 썬른다)
- ◎ 밤의 꺾밥 내지 말라. (ㅁ슴탄다)
- ◎ 밤의 머리 빗지 말라. (ㅁ슴탄다)
- ◎ 밤의 머리 굶지 말라. (ㅁ슴탄다)
- ◎ 해 진 후 머리 근치지 말라.
- ◎ 밤의 집의서 썬ㅁ름 불지 말라. (도둛돈다)
- ◎ 밤의 멘경 보지말라. (ㅁ슴탄다)
- ◎ 밤의 방 썰지 말라. (가난하여진다)
- ◎ 밤의 스답 방망이질하지 말라. (사름 죽나)
- ◎ 밤의 불 장난 말라. (오죤 썬다)
- ◎ 밤의 꿈 본 말 하지 말라.
- ◎ 밤질 걸을 때 뒤돌아보지 말라. (귀신이 썬른다)
- ◎ 밤의 중의 고망 음푸지 말라.
- ◎ 밤의 다리웨 높 빌려주지 말라.

23. 就 寢

- ◎ 입맹이에 손 낱 줍자지 말라. (수침이 한다)

- ◎ 얼굴에 먹칠 하영 줌자지 말라. (곧 죽나)
- ◎ 입 벌렁 줌자지 말라. (복 떨어진다)
- ◎ 주먹 쥔영 줌자지 말라. (손가락 폐왕 자민 머음이 좋록 주먹 쥔영 자민 머음이 오그라진다)
- ◎ 엎어정 줌자지 말라. (복 나간다)
- ◎ 다리 꼬불렁 줌자지 말라. (머음이 오그라진다)
- ◎ 줌자명 한숨쉬지 말라.
- ◎ 줌자명 뇌 꼴지 말라. (부모 일찍 돌아가신다)
- ◎ 머리맛의 모로 눅지 말라.
- ◎ 머리맛의 알테기 낱 줌자지 말라. (꿈사리 나쁘다)
- ◎ 누영 축복름에 발 걸치지 말라. (간세든다)
- ◎ 머리맛의 양말 낱 자지 말라. (꿈사리 사납나)
- ◎ 방안에 황 낱 자지 말라. (똥 난다)
- ◎ 어스름 줌 엇이민 굿나. (어스름줌 하민 복좋다)

3. 日 常 舉 動

3. 日 常 生 活

- ◎ 군 알테기질 하지 말라.
- ◎ 뱀소 보명 특가리 받청 앓지 말라. (빈복하여진다)
- ◎ 모즈 쓰꼭 뱀소 보지 말라. (배락맞나)
- ◎ 생석 배영 눅지 말라. (입이 비풀어진다)
- ◎ 아궁이나 고망에 오줌싸지 말라. (봉알 붓인다)
- ◎ 손장난 심하게 하지 말라. (복 돌아난다)
- ◎ 한숨 홑불로 쉬지 말라. (일 안뵈나)
- ◎ 먼 웨방 나간 다음 사흘 전에 방 썰지 말라.
- ◎ 방안에서 집저영 배끗덜로 나오지 말라. (복 나간다)

- ◎ 방안에서 그릇 벌리지 말라. (쌀 들어온다)
- ◎ 방에 불 돌 싸지 말라. (죄스 때에만 불 돌 싸는 거난)
- ◎ 마당비로 정지 썰지 말라. (동티난다)
- ◎ 담 넘어 덩기지 말라.
- ◎ 너무 준셈 좋지 말라. (단행한다)
- ◎ 존재주 하민 즈냐 못 얻어먹나.
- ◎ 울당 웃지 말라. (배똥에 터럭 난다)
- ◎ 존소리 너무 하지 말라. (가난한다)
- ◎ 일름 붉은 색으로 씨지 말라. (죽나)
- ◎ 좋은 말만 하지 말라. (말 좋은 집의 장 고린다)

32. 身 体 關 係

- ◎ 머리 풀지 말라. (머음이 허겨진다)
- ◎ 빠진 너 아무되나 데끼지 말라. (웃닐 지붕으로 데끼꼭 아랫닐 살
래 아래 데껴사 너가 잘난다)
- ◎ 일하당 손 털지 말라. (빈복한다)
- ◎ 손으로 트가리 발투지 말라. (빈복한다)
- ◎ 손거심 일게 말라. (미움받나)
- ◎ 손가락 입에 물지 말라. (불미영한다)
- ◎ 손콧·발콧 까끈 거 아무되나 데끼지 말라. (불치 마든 뒤 데껴샤쥬
아무되나 네경 생이가 좃어 먹으민 나쁘다)
- ◎ 손콧 화리에 놓지 말라.
- ◎ 까끈 손콧 드람취 먹게 하지 말라. (눈 어두워진다)
- ◎ 다리 꼬불령 앓지 말라. (머음이 오그라진다)
- ◎ 복 털지 말라. 다리 달달 털지 말라. (복 나간다)
- ◎ 발 재지 말라. (재판 거는 일 생긴다)
- ◎ 지레 재지 말라. (지레 안 른다)

- ◎ 군태 밀지 말라. (군옥 듣나)
- ◎ 집의 들어올 때 왼쪽 발 차지 말라. (재수 엇나)
- ◎ 집 나갈 때 오른쪽 발 차지 말라. (재수 엇나)

33. 對 人 關 係

- ◎ 빈 허벅 경 질카르지 말라. (재수 엇나)
- ◎ 누운 사람 가슴 넘지 말라. (누운 사람 가슴 아픈다)
- ◎ 누운 사람안티 절하지 말라. (좋지 아니혼다)
- ◎ 눕이 대벤 보는 거 보지 말라. (귀막나)
- ◎ 눕안티 춤 바끄지 말라. (뵈 발앙 버짐 난다)
- ◎ 빗츄룩으로 사람 따리지 말라. (맞인 사람 죽식 엇나)
- ◎ 대낭으로 만든 걸로 눕 따리지 말라. (몰랑 죽나)
- ◎ 독지 지프지 말라. (재수 엇나)
- ◎ 일훔 때 그 우회로 넘어가지 말라. (일이 늦어진다)
- ◎ 쌀 풀 때 뒤통 끊으게 주지 말라. (저성 가민 고쟁이로 눈 찢렁 켜
다)
- ◎ 사람 수정 손가락으로 세지 말라.
- ◎ 돌이 대가리에 뇌 잡지 말라. (싸움난다)
- ◎ 머리를 돌이 빗지 말라.
- ◎ 눕 머리터럭광 자기 머리터럭 서끄지 말라.
- ◎ 먼뒹 사람 왕 울지 말아사 혼다. (송시난다)
- ◎ 눕의 집의 강 소벤보지 말라. (다시 그 집의 가게 뵈다)
- ◎ 눕의 집의 강 발 저리지 말라. (다시 그 집의 가게 뵈다)
- ◎ 뇌 안으로 오그라진 사람 조심하라. (욕심이 썩난)
- ◎ 곱실머리 조심하라. (폐라우난)
- ◎ 콧매 오그라진 사람 조심하라. (욕심이 썩난)

34. 女 人 舉 止

◎ 여주 식전에 놈의 집의 가지 말라. (웨방 가는 사름 재수 었나. 그 집이 해롭나)

◎ 여주가 식전에 남주 신 곳에 물질레 가지 말라. (남주가 재수 었나)

◎ 여주 밤의 식수 하지 말라. (곰보새식방안티 씨집간다)

◎ 여주 밤의 머리 풀지 말라. (집안 망혼다)

◎ 예펜네 한숨쉬지 말라. (남편 재계 죽나)

◎ 여주 셋빚름 불지 말라. (팔재 쟈다)

◎ 집가제 밋되서 여주 울민 나쁘다.

◎ 여주 독 대강이나 독 모가지 먹지 말라. (그릇 잘 쟈다)

◎ 여주 소리질르지 말라. (홀어멍 쟈다)

◎ 여주 눅뜨지 말라. (집안 망혼다)

35. 氣 象 關 係

◎ 천둥할 때 갈라정 눅지 말라. (검방지맹 호영 배락 맞나)

◎ 천둥할 때 문지방에 걸터앉지 말라. (검방지맹 호영 배락 맞나)

◎ 비 올 때 반듯하게 갈라정 눅지 말라. (배락 맞나)

◎ 비 올 때 셋빚름 불지 말라. (재수 었나)

◎ 비 온 날에 머리 곱지 말라. (상계든다)

◎ 어린아이덜 춤 피피퍼하게 말라. (비칭혼다)

36. 農 事 關 係

◎ 멍석 세와 놓지 말라. (복 나간다)

◎ 용시 때 불 담아오지 말라. (가난혼다)

◎ 논배 찌꺼기 불에 질지 말라. (허멸 난다)

- ◎ 곡석계가 불에 들어가지 말게 하라. (아이가 허물허물 허물난다)
- ◎ 문발래 푸는채 놓지 말라. (푸는거난 북 나가카부덴)
- ◎ 바깥길로 돌아앉앙 푸는채질 하지 말라. (가난하여진다)
- ◎ 문 앞의서 푸는채질 말라. (가난하여진다)
- ◎ 마래착 벌르지 말라. (동티난다)
- ◎ 밤의 마테 졸지 말라. (곡석복 잊어진다)
- ◎ 빈 방에질이나 빈 마테질 하지 말라. (송년든다)
- ◎ 정월 보름 전엔 농수도 짓지 말폭 돈거래도 하지 말라. (보름 전엔 조심하여사 하난)

37. 疾病關係

- ◎ 사막이나 혹 마른 건 팔즈대로 그냥 두어사 혼다. (베민 나쁘다)
- ◎ 부시럼 세지 말라. (더 하영 난다)
- ◎ 큰 구실홀 뎨 꿰기 보끄지 말라. (곰보 웬다)
- ◎ 큰구실홀 뎨 상발 패우지 말라. (송본다)
- ◎ 들렀 날 때 바룻게기 먹지 말라. (일뉘마다 다시 들렀난다)
- ◎ 탄약 불에 담뱃불 부치지 말라. (약 소파 잊어진다)

4. 歲時舉動

41. 正月

- ◎ 정월 멩질날 물 지지 말라. (동굽나)
- ◎ 정월 초하를날 여즈 늬의 집의 안간다. (그 집 일년내낭 재수 잇나)
- ◎ 정월 초하를날 비로 방 설지 말라. (빈복혼다)
- ◎ 멩질날 바느질 말라. (손 앓인다)

- ◎ 초하를날 아침의 여즈 놈의 집의 안 간다. (그 집의 근심이 꼬칠 사이 엇나)
- ◎ 초하를날 풀쭈지 말라.
- ◎ 정초에 비질 하지 말라. (떨어버리는 거난)
- ◎ 정월 초상에 불치 그너내지 말라. (빈복훈다)
- ◎ 정월 초상에 봉스안티 점치지 말라. (더 나빠진다)
- ◎ 정월 보름 전엔 마깨소리 내지 말라.
- ◎ 정월 보름날 아침의 오푍밥 하영 먹어사 훈다. (오복“五福”) 받쟁)
- ◎ 정월 보름날 ㄹ래맹이도 하지 말꼭 풀칠도 하지 말라.
- ◎ 정월 보름날 칼 써지 말라. (칼이 해로운 거난)
- ◎ 정월월에 남즈 개궤기 먹지 말라. (그 해 재수 벗어진다)
- ◎ 정월월에 처녀 죽으민 마을에 승시 난다.
- ◎ 정월월에 불나게 말라. (그 해 식번 불난다)

42. 二月 ~ 十二月

- ◎ 정이월엔 장 돕지 말라. (정이월은 상들이난)
- ◎ 이월 초하를날 아침의 여즈 놈의 집의 가지 말라. (다쉬 안뵈다)
- ◎ 정초 셋절드느날·생일날에 죽이랑 먹지 말라. (그 해 재수 엇나)
- ◎ 셋절드느날 칼질 하지 말라.
- ◎ 셋절드느날 술·돈·물건을 놈 주지 말라. (빈복훈다)
- ◎ 셋절드느날 여즈 놈의 집의 좃아가지 말라. (좃아간 집 밧되 그 해 짐질 짓인다)
- ◎ 이른 봄에 구렁이 보지 말라. (궤긴다)
- ◎ 단오날 머리 까끄지 말라. (머리터럭 빠진다)
- ◎ 유월월엔 앓인 방석도 고져 앓지 말라. (나쁜 돌이난 해로우카브덴)
- ◎ 유월월에 잔치 하지 말라.
- ◎ 닷새나 아호렛날 집일 하지 말라.

- ◎ 일찍이나 아흐렛날 어디 나가지 말라. (재수 벗어진다)
- ◎ 장은 개날 덩아사 한다. (개가 쿨쿨호 집생이난)
- ◎ 윤들에 이소호지 말라. (해롭나)
- ◎ 선들 그믐날 줌자지 말라. (눈섭 환다)

5. 衣 食 住

51. 服 飾

- ◎ 소개옷 멩글 때 쪽에 머리터럭 들어가지 말아사 한다. (근심 생긴다)
- ◎ 옷 입은 채 줌지 말라. (옴치 막아진다)
- ◎ 입은 옷 바느질호 때 말호지 말아사 한다. (머구리 췌다)
- ◎ 웨방 갈 때 바느질호지 말라. (해롭나)
- ◎ 옷 멩글당 해 냉기지 말라. (해롭나)
- ◎ 옷 뒤쌍 입지 말라. (머쟁이 벗어진다)
- ◎ 치매 뒤쌍 입지 말라. (재수 엇나)
- ◎ 추진 옷 입지 말라. (입여께 한다)
- ◎ 늬의 옷 입어볼 댜 춤 바깥 입어사 한다. (늬의 곳인 것 부뜨카브뉘)
- ◎ 설밥 캐우지 말라. (재수엇나)
- ◎ 속옷 안 다린다. (재수 엇나)
- ◎ 여즈 속옷 울담에 널지 말라.
- ◎ 보선 다리웨질호지 말라.
- ◎ 다리웨질은 꼴로로 호여사 한다. (입여께 한다)
- ◎ 빈 스담 방망이질호지 말라. (어멍 므음이 상한다)
- ◎ 널어 둔 옷 도쟁이브름에 놀려가 불뉘 췌진다.
- ◎ 지붕 우희 스담 널지 말라.

- ◎ 장황 우회 여즈 옷 널지 말라. (부정한다)
- ◎ 치매 불 캐우민 아기 뺨다.
- ◎ 중이가 이불 쉼물게 하지 말라. (뺨난다)
- ◎ 여즈 옷 고정 남즈 옷 뺨글지 말라. (재수 잇나)
- ◎ 눅안티 현 옷 주지 말라. (준 사름이 해롭나)
- ◎ 친흔 사름안티 신발 사주지 말라. (정떨어진다)
- ◎ 신발 잃어 불지 말라. (재수 잇나)
- ◎ 신 도둑 맞치지 말라. (재수 잇나)
- ◎ 방안에서 우산 떼우지 말라.
- ◎ 머리에 망탱이 씨지 말라. (일이 잘 안 쥘다)
- ◎ 흰 끈으로 머리 무끄지 말라. (상 만난다)

52. 飲 食

521. 食 事 時

- ◎ 밥 먹을 때 입안 음식 보이지 말게 하라. (복 나간다)
- ◎ 밥사발엿 밥은 앞으로 차근차근 먹어사 혼다. (요으로 먹으민 눅안티 의지하젠 하곡 꺼끌로 먹으민 빌어먹게 쥘다)
- ◎ 밥 흘렁 먹지 말라. (빈복하여진다)
- ◎ 밥 먹을 때 툇가리 받청 먹지 말라. (빈복하여진다)
- ◎ 굿그릇 옆쪽에 낡 밥 먹지 말라.
- ◎ 밥그릇 손바닥으로만 받청 먹지 말라. (가난하여진다)
- ◎ 사발 포개여 밥 먹지 말라. (큰 일 난다)
- ◎ 너 빠진 그릇에 음식 담양 먹지 말라. (복 나간다)
- ◎ 툇다진 사발에서 밥 먹지 말라. (재수 잇나)
- ◎ 깨여진 그릇에 음식 낡 먹지 말라. (몸에 해롭나)
- ◎ 밥 먹당 손가락 떨어지우지 말라. (재수 잇나)

- ◎ 드리누엿 밥 먹지 말라. (쉐가 췌다)
- ◎ 밥 먹당 자리 바꾸지 말라. (자주 이사혼다)
- ◎ 밥 먹을 때 비질헝지 말라. (빌어먹나)
- ◎ 밥 먹으멍 멘경 보지 말라. (미움받나)
- ◎ 얼레기질헝멍 음식 먹지 말라. (몸에 해롭나, 얻어먹나)
- ◎ 조반 때 밥 줍앙 먹지 말라. (그 날 재수 엿나)
- ◎ 아침의 ㄹ음식 먹지 말라. (재수 엿나)
- ◎ 아침 밥상에 젓가락 짝 맞아사 혼다.
- ◎ 남즈 국 하엿 먹지 말라. (가시어멍 눈 델라진다)
- ◎ 국물 먹당 냉기지 말라. (빈복혼다)
- ◎ 음식 너무 싱겁게 먹지 말라. (몸에 터럭 하엿 남다)
- ◎ 밥주시 냉기지 말라. (복 나간다)
- ◎ 밥 줍앙 먹당 눅 주지 말라. (빈복헝여진다)
- ◎ 밥상 앞의서 울지 말라. (가난헝여진다)
- ◎ 밥 먹은 자리 비로 쉐지 말라. (복 나간다)
- ◎ 밥 먹은 후에 질트지 말라. (간세혼다)
- ◎ 밥 먹엿 곧 눅지 말라. (간세혼다)

522. 飲 食

- ◎ 생이 췌기 먹지 말라. (요망시려와진다)
- ◎ 촌새 하엿 먹지 말라. (조진 조진 말 잘혼다)
- ◎ 김이 먹곡 사탕 먹으민 죽나.
- ◎ 김이헝곡 칭 ㄹ찌 먹으민 죽나.
- ◎ 가제 먹곡 사탕 먹으민 죽나.
- ◎ 가지 놀채 먹지 말라. (늑 삭나, 셋가지 인다)
- ◎ 생췌 먹지 말라. (늑 인다)
- ◎ 풀 먹지 말라. (속 부튼다)
- ◎ 모든 누냉이 때마다 굶지 말라.

- ◎ 솟 식임 물 조끔 뇌사 한다. (조왕할망이 용심난다)
- ◎ 쌀 시퀀 물로 불 끄지 말라. (봉사, 병어리 난다)
- ◎ 뇌 배영 술 먹지 말라. (죽나)
- ◎ 놈이 왕 그릇 시치게 말라. (복 잊어진다)
- ◎ 그릇 벌릴 때 육하지 말라. (손에 쌀 부면 벌린 거난 육하여 가민 더 벌르게 된다)
- ◎ 먼뿃 사름 그냥 물 주민 안된다. (남섭 띄왕 주어사 한다)
- ◎ 어른안티 물 ㅈ겨 갈 때 몬저 안 마신다. (그릇에 입이 부른다)
- ◎ 메주 착 맞추영 맹글지 말라.
- ◎ 장 맛 고리긴 안된다. (취진다)
- ◎ 시리며 킬 때 집 오르기 전에 사름 출입 말아사 한다. (떡이 익지 아니한다)
- ◎ 떡치당 배겼디 나가지 말라. (부정탄다)
- ◎ 제솟밥 청 먹지 말라. (조상이 노한다)
- ◎ 드르에서 음식 먹을 때 조끔 배영 버린 다음 먹어사 한다. (산신평 조상 위훈 다음 먹으라)

53. 居 住

531. 住 宅

- ◎ 집 세울 때 속절 하지 말라. (송난다)
- ◎ 이문 앞의서 물 솟아나게 말라.
- ◎ 문 앞의 흘르는 냇물이 엇어사 한다. (하는 일이 잘 뉘지 아니한다)
- ◎ 문지방은 뵘지도 말곡 배어늑지도 말라.
- ◎ 제창문으론 대주만 출입호곡 다른 식군 출입하지 말라.
- ◎ 정지. 파지 말라. (동티난다. 하지만 정지 파진 하여도 매우진 아니한다)

- ◎ 대덜포 부러지게 말라. (집안 망혼다)
- ◎ 대덜포 소리나게 말라. (대주가 죽나)
- ◎ 이사할 때 집안 치왕 가지 말라. (빈복혼다)

532. 家 具

- ◎ 바놓 꺼꺼지게 말라. (몹설아진다)
- ◎ 바놓 축복름에 꽃이지 말라. (빗진다)
- ◎ 바놓에 썰 쪼르게 꺾지 말라. (멩이 쪼른다)
- ◎ 바놓 하나만 놈 주지 말라.
- ◎ 바놓 하나만은 안산다.
- ◎ 목침이나 베개 우희 올라사지 말라.
- ◎ 목침 꺾아앗지 말라.
- ◎ 베개 세우지 말라. (복 나간다)
- ◎ 다리웨 마주 받지 말라.
- ◎ 화리 낫단 자리에 곧 앓지 말라. (허멸난다. 씨왓본다)
- ◎ 솟뚜경 우희 칼 올려놓지 말라. (조왕할망 쟁내영 집안이 해롭나)
- ◎ 솟뚜경으로 장황 더끄지 말라. (큰 아벌 안텐다)
- ◎ 솟뚜경은 마주 마트지 말라.
- ◎ 장황 벌르지 말라. (집안 망혼다)
- ◎ 멘경 벌르지 말라. (채수 엇나)
- ◎ 벌러진 멘경으로 얼굴 보지 말라. (얼굴에 상처 난다)
- ◎ 놈안티 비 그냥 주지 말라. (돈 발앙 주어사 혼다)
- ◎ 박새기 캐우지 말라. (집안이 가난하여진다)
- ◎ 남방에 불습지 말라.
- ◎ 화재 난 때 뱅이왕에서 남방에를 끄내여사 혼다. (췌가 불레레 든다)
- ◎ 뤼악새기 놈 주지 말라. (복 나간다)
- ◎ 이사할 때 베수기 ㄷ경가지 말라. (이리저리 짓이는 거난 살림이

히겨진다)

- ◎ 이삭할 때 비 ㄴ정가지 말라.
- ◎ 질 걸당 놀부치 좃지 말라.

6. 動 植 物

63. 動 物

- ◎ 개가 울민 집안 망훈다.
- ◎ 개가 지붕 우희 올라가민 굶나.
- ◎ 사기 사발에 개 것 주지 말라. (개가 사나와진다)
- ◎ 개 밥 먹을 땐 따리지 말라.
- ◎ 빗츄룩으로 개 따리지 말라. (새끼 진다)
- ◎ 개 일곱 해 이상 질루지 말라. (鷄三年, 狗七年)
- ◎ 개 오래 묵으면 요망훈다.
- ◎ 미친 개안터 물리지 말라. (그 사름도 미친다)
- ◎ 도새기 새끼 난 때 상제 출입하지 말라. (도새기 새끼 죽나)
- ◎ 도새기 새끼 난디 입싱겨운 소리 하지 말라. (도새기 새끼 죽나)
- ◎ 도새기 이사 아니훈다. (집안 손해본다)
- ◎ 도새기집 홉불로 웅기지 말라. (동터난다)
- ◎ 벨락은쇄 부리지 말라. (손해본다)
- ◎ 아방 타는 물 즈석 못 탄다. (즈석이 해롭나)
- ◎ 암퇘 울민 집안 망훈다.
- ◎ 집의 빙애기 깨울 때 풀비지 말라. (빙애기 죽나)
- ◎ 고냉이나 강생일 너무 아끼지 말라. (즈석 귀훈다)
- ◎ 고냉이 죽일 땐 하늘 보게 하영 죽이지 말라. (찰리나 망탱이에 쌍물든지 물에 빠지운다)
- ◎ 아척의 원숭이 말 하지 말라. (재수 었나)

- ◎ 배엽 질카르민 재수 었나. (흐는 일이 졸라정 잘 안된다)
- ◎ 배엽 잡으민 웬쪽으로 돌려사 혼다. (웨를 용사반쟁)
- ◎ 배엽 죽일 땐 막 죽여 부러사 혼다. (살아나민 원수 가프젠 혼다)
- ◎ 생이 집의 들어오게 말라.
- ◎ 사름 머리 우회 새똥 떨어지민 재수 었나.
- ◎ 제비생이 집 웅기지 말라. (집이 부정혼다)
- ◎ 가마귀나 춤새 놀아가당 사름 머리 우회 검은 똥 싸지 말아사 혼다
(흰 똥 싸민 북 입곡, 검은 똥 싸민 뺑 걸린다)
- ◎ 지냉이 우회 오줌싸지 말라. (조쟁이 붓나)
- ◎ 미짱냥에 암재열이 앓이민 그 냥가지가 소들아 분다.
- ◎ 잠삼계엿지 정지에서 나오민 집안에 환이 생긴다.
- ◎ 지다리 제 굽에 들어가지 말아사 혼다. (죽나)

62. 植 物

- ◎ 놈의 호박 도둑질 하지 말라. (죽을 때 배 붓영 죽나)
- ◎ 곧 동맹 올매에 손까락질 하지 말라. (떨어진다)
- ◎ 고치냥으로 불습지 말라. (허멸난다)
- ◎ 과실냥으로 불습지 말라. (판가에 뿔진다)
- ◎ 버드냥으로 불습지도 말곡 지땡이도 하지 말라. (버드냥으로 웨초
리나 혼다)
- ◎ 콤대산이 꺾질 캐우지 말라.
- ◎ 솟밧티 초기 나민 집안이 췌건다.

說 話

指導教授	梁	重	海
班 員	秦	春	培 (국4)
	全	榮	轍 (국2)
	高	貞	姬 (국1)

說話傳承者

金 奉 奎 <남·87>	姜 龜 恒 <남·81>
姜 元 河 <남·34>	姜 泰 玉 <남·75>
吳 天 錫 <남·71>	이 신 생 <여·52>

차 례

I 背景과 範圍

II 說 話

1. 倉川里 設村說話
2. 謫客 任觀周
3. 並岳과 姜別將
4. 軍山에 얽힌 說話 (1)
5. 軍山에 얽힌 說話 (2)
6. 軍山에 얽힌 說話 (3)

7. 명당자리 집터 배엄바리

8. 猓 來

9. 난드르와 든드르

10. 당 캐

11. 어린 官員의 슬기

12. 슬기로운 童子

13. 壯士 막사니

I 背景과 範圍

倉川里는 東으로 中文面 下猓里, 西로는 柑山里, 南으로는 大坪里, 北으로는 上倉里 이렇게 둘러쌓여 있는 마을로서 西南쪽으로는 風致秀麗한 倉川溪谷을 끼고 있고, 마을 어디서나 軍山, 並岳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다.

倉川里誌에 依據하면 지금으로부터 300年前에 設村된 마을이라고 하나 濟州道에서는 典型的인 선비촌일 뿐아니라, 마을 군데 군데 老木이 서 있어 어딘가 깊은 歷史를 간직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듯하다.

人口는 230世帶 約 900名을 헤아리게 된다고 하나 住民의 姓氏로서는 設村先祖 姜涇聘의 後孫인 이른바 倉川姜氏를 비롯, 이 姜氏집에 사위가 되면서 入住해온 吳泰連의 후손인 軍威吳氏, 마찬가지로 姜氏집에 사위가 되면서 入住해온 金斗崗의 후손인 慶州金氏 등을 中心으로 한 氏族部落에서 發展해 온 마을이라고 한다.

姜涇聘은 柑山里에서 넘어와 이 마을을 開拓하였다고 하며, 이 姜涇聘의 사위로 들어온 吳氏와 金氏는 南元面에서 移住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倉川姜氏直孫으로는 이 마을 老人會 會長인 姜泰玉씨 (76), 大靜鄕校典校를 지낸 바 있는 姜龜恒씨 (81) 등 有力人士가 있으며, 慶州金氏로는 安德面 初代面長을 지낸 金奉奎씨 (87) 를 만날 수 있어, 直接 資料蒐集에 協助하여주셨을 뿐 아니라, 그 金奉奎翁의 아드님으로 前 南濟州郡農協組合長 金龍洙씨, 그리고 前教育委員 金龍河씨가 이 마을 出身 有力人士로 있고, 現 安德面長 (1972年現在)인 金漢翊씨는 金龍河씨 아드님이 된다.

4·3事件으로 因한 家屋被害를 거의 받지 않았는 듯 (燒失 18棟), 濟州 特有的인 家屋構造의 樣相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姜允奎氏宅 등 200年以上된 古家들도 찾아볼 수 있다.

說話로는 이 마을을 둘러싼 自然環境 곧 溪川이나 湖沼, 山岳, 丘陵의 形成 등에 關한 것이 많으며, 이러한 地緣을 떠난 說話로는 그 大部分인 地方 固有的인 自然發生의인 것이라기 보다는 漢文典據에서 나온 것 같은, 어디까지나 漢學者의 냄새가 풍기는 것들이어서 과연 선비의 마을임을 느끼게 한다.

限定된 調査期間中에 있는 說話를 모두 採錄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採錄된 說話라 하더라도 漢學者의 냄새가 풍기는 것들은 割愛하였으며, 地形에 關聯된 說話에 있어서 斷片的인 것은 이번의 發表에는 保留하기로

하였다.

採錄된 說話에서 위에 摘記한 바와 같이 이것 저것 빼다가 總十三篇만을 실기로 하며 이 說話에 對한 研究分析은 다음 課題로 하고 여기에서는 다만 資料로서만 소개할 뿐이다. 說話表記에 있어서는 편의상 「壯士 막사니」 한 篇 만을 方言으로表記하고 나머지는 標準語로表記했다.

Ⅱ 說 話

1. 倉川里 設村說話

倉川里誌에 다음과 같은 設村說話가 記錄되어 있다.

「자금으로부터 285年前 (註: 1598年 基準) 즉 檀紀 4007年 (肅宗 甲寅: 註 1664年) 봄에 姜涓聘 (當時 31歲로 推測됨)이 大靜座首로 있을 때 濟州牧使 邵氏 (名未詳)가 巡歷行次로 旌義와 大靜境界에 이르렀을 때 迎對나갔던 座首 姜涓聘의 人品됨에 比하여 그 衣服이 너무 貧弱함은 家勢가 極히 貧寒함인 줄 알고 그 一行이 倉庫川 머리에 이르러 잠간 휴식을 할 때 牧使가 直接 倉川 中央路 큰거리 學校 (現 倉川國校) 北쪽을 가리키며 「저기에 집을 지어 살면 當代에 大靜甲富는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왔다.

姜涓聘은 집에 돌아간 後 이 말을 명심하여 長男임에도 불구하고 父母의 슬하를 떠나 赤手空拳으로 移住하여 開墾하기 시작하였다.

그 後 吳泰連씨, 金斗崗씨가 順次로 旌義方面으로부터 移住하여 사위가 되고 그의 자손들로 하여 一個族屬部落을 形成하였으니 곧 倉川里라 稱하였다.」

以上은 里誌에 記錄되어 있는 設村說話를 轉載한 것이려니와 이 마을의 本名은 倉庫川里라 했으며 改稱하여 지금의 「倉川里」라 했다.

倉川里 앞에 溪川이 흐르고 있거니와 川邊兩岸이 奇岩絕壁으로 이루어졌고 그 岩壁에 큰 岩窟이 있어 倉庫型을 이루고 있음으로 하여 이 溪川

의 名稱을 「倉庫川」이라서 里名도 「倉庫川里」라 하였던 것이다.

邵牧使와 姜涇聘과의 이야기로는 다음과 같은 口傳이 따르고 있다. 卽地理를 잘 아는 邵牧使가 姜涇聘에게 집터를 定해주고 가로되 「집터 마당에 盤石이 하나 있는데 집을 모두 지을 때까지는 이 盤石을 열지 말라고 하였다.

姜涇聘은 집을 짓는 동안 마당의, 그 문제의 盤石위에 앉아서 그 盤石을 지켰다. 한번은 姜씨가 소변을 보러 자리를 뜬 사이에 종놈이 무슨 理由로 主人 姜씨가 이 盤石을 지켜 앉아 거기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새끼도 ㅍ고 하면서 줄곧 그러는지를 알고 싶어서 主人이 소변보러 간 틈에 盤石을 열어봤더니 그곳에는 말개미 (큰개미)만이 있었기로 그냥 덮어 버렸다.

소변보고 돌아온 主人은 아무런 事實도 모르고 매일 그 盤石위에 앉아서 이를 지키며 집짓는 것을 감독하였다. 집을 모두 짓고 나서 人事次 邵牧使를 찾아갔더니 「보기도 싫으니 들어오지도 말라」 하고 호통을 하며 꾸짖는 것이 아닌가. 理由를 물어보니, 왜 열지 말라는 盤石을 열어버렸느냐는 것이었다.

邵牧使는 말 천마리, 소 천마리를 이미 놓쳐버렸다고 恨嘆을 하였다. 그리고 前에 邵牧使가 집터를 볼 때 집을 지은 다음에 사람 하나가 상할 것이나 그 뒤에 發福할 것이라 하였는데, 흙질하는 남걸인 하나가 죽었다고 한다.

李朝 때 濟州牧使로 邵씨는 없었으니 傳說化되면서 訛傳된 것이 아닌가 보아지며 里誌의 邵牧使와 같은 時期인 肅宗朝에는 節制使 蘇斗山이가 있었으니 이가 아닌가하는 推測도 可能하다.

蘇斗山은 肅宗元年 己卯六月에 濟州에 到任하고 翌年 丙辰 二月에 進去하였으니 年代가 꼭 들어맞지는 않는다.

說話傳承者 金奉奎 <남·87>

里誌참조

2. 謫客任觀周

「창고내」(倉庫川)의 「창고」(石窟) 南 500m 쯤의 거리에 溪川의 兩岸은 屏風岩으로 둘러져 있고 아름다운 常綠樹가 우거져 있어 可히 絶景을 이루고 있는 곳이 있다. 또 한쪽에서는 샘물이 솟아 넘쳐흐르는 맑은 물소리가 빈 골짜기를 울림하고 있어서 可히 仙境이라 할 만한 곳이 있다. 여기에는 謫客任觀周가 멀리 故鄉을 그리워 하면서 외로움을 달래던 곳이었요, 그가 謫居生活를 마치고 陸地로 돌아갈 때 남겼다고 傳하는 다음과 같은 漢詩 한 수가 岩壁에 새겨져 있다.

始出荆門日
先尋枕下川
蒼巖三曲立
短瀑晚楓邊

丁亥秋

(意譯)

귀양살이 마치는 날에
가까이에 있는 시내를 찾았더니
푸른 바위는 세 폭으로 굽어 둘러 섰고
폭포는 단풍 사이로 지고 있더라.

年代는 「丁亥秋」라 하였으니 最近으로부터 「丁亥年」을 찾아보면 86年前인 1887年, 그리고 146年前인 1827年이 환산되어 나오나 이 石壁의 任觀周의 詩에 있어서의 「丁亥」는 石壁의 글자가 많이 마멸되어 있는 点으로 봐서 지금으로부터 146年前인 1887年이 丁亥年이 아닌가 보아지나 謫客이라는 任觀周에 對한 記錄은 찾아 볼 수 없고 다만 말로만 傳해지고 있다.

說話傳承者 姜龜恒 (남·81)

3. 並岳과 姜別將

柑山姜氏先世에 英雄이 있었다. 이 분이 姜別將 (人物未詳) 이다. 姜別

將은 性格이 강역하고 피벽스러웠다. 그때에 한 僧이 있어 그의 집에 시주를 받으러 갔다가 박대를 받고 그 분풀이를 할 생각으로 피를 내어 말하기를 「姜別將 先墓의 地形이 개(狗)形體인데 노력으로 이것을 고쳐 잘 만들어야 됩니다」 하고 姜別將에게 말했다. 또한 그 墓가 있는 오름은 봉우리가 둘인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으니, 이것이 크게 不吉하니 큰 오름을 깎아 갈게 해야 후손이 發福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姜別將은 그것을 깎아버리기는 어렵지 않다고 하며 人力을 동원하여 그 산을 깎아 버렸더니 山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 나왔다고 한다. (並岳은 붉은 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금도 붉다)

마침 큰비가 쏟아지니 山에서 흘러내리는 피는 빗물과 어울려 쏟아져 넘친 것이다. (지금도 당시에 깎아내린 흔적이 있다고 한다)

이 事件이 中央에 알려지자 나라에서는 逆賊이 날 것 같다 하여 姜別將과 同時代의 倉川姜氏先世 (人物未詳)을 잡아 올리라고 하였다.

조정에서는 柑山姜氏先世인 姜別將과 倉川姜氏先世를 잡아올리기 위하여 내려와 倉川姜氏先世의 집을 보니 네개의 기둥이 네모기둥이고 처마에 매어달린 네개의 풍경은 전부 소라껍질을 달고 있었다.

倉川姜氏先世는 조정에서 잡으러 올 것을 미리 알고 집 네기둥이 둥근 것을 미리 깎아 네모기둥으로 만들고 가난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풍경은 모두 소라껍질로 만들어 단 것이다. 옷도 걸옷은 명주옷을 입고 속에는 전부 갈옷을 입고 있었다.

조정에서 잡으러 온 사람이 갈옷을 보고 이 옷은 어떤 옷이냐고 물었더니 倉川姜氏先世가 말하기를 「제주도에는 감나무가 많아서 그 감을 짜서, 그 즙을 내어 무명옷에 들어서 농사할 때 입게 되는데, 이 옷을 입고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홀연히 불려나왔습니다」 하고 아뢰니 倉川姜氏先世는 이것으로 免罪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柑山姜氏先世는 禍를 뺄 수 없었다. 柑山姜氏先世는 걸로는 갈옷을 입고, 옷을 벗겨 갈수록 속에는 명주옷만 입고 있었으니 관원의 눈을 속이려고 하였다 하여 노여움을 샀던 것이라 한다.

姜別將이 서울로 잡혀 갈 때는 아들도 따라갔다. 獄中에서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느 아들이 왔느냐고 묻자, 큰아들이 왔다고 하니 「아이고 큰아들이 왔으면 나는 죽었다」고 탄식을 하였다. 작은 아들은 의지가 강하고 똑똑하였으나, 큰아들은 마음이 약하고 미련하였기 때문이다.

姜別將이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罪를 否定하였었는데 아들은 모든 罪를 首肯해 버렸기에 결국은 姜別將은 거짓말을 한다고 하여 죽여 버렸다고 한다.

원래 並岳은 新山이라 하였고 두 봉우리가 같지 않아, 하나는 크고 다른 하나는 작았던 것인데 그에게 박대반은 僧의 꾀에 넘어가서 큰 봉우리를 깎아 나란히 만들어 버림으로써 並岳이란 이름이 생기게 되었으며 山을 깎았을 때 선혈이 흘러 나왔고 그 山을 깎은 罪로 姜別將은 조정에 잡혀가 죽었는데 그 山을 깎은 흔적은 아직도 生生하다고 한다.

說話傳承者 金奉奎 (남·87)

4. 軍山에 얽힌 說話 (1)

倉川里 南쪽에 자그마한 山이 있는데 軍山이라 불리우고 있다. 이 山에 對해서 倉川里誌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실려져 있다.

「軍山은 南部에 位置하고 있다. 高麗 穆宗十年에 耽羅海中에 한 山이 湧出하거늘 朝廷에서는 大學博士 田拱元을 命하여 가보도록 하였다. 와 본즉 耽羅人이 가로되 山이 湧出할 때에 雲霧가 하늘을 어둡게 가리우고 땅이 크게 울림하며 떨리기를 거듭하다가 七晝夜만에 하늘이 개이고 땅의 울림이며 떨리기를 멈추니 높이가 약 360m나 되고 둘레가 40餘里인데 草木은 없었고 다만 연기만 끼어 있었으며 石硫黃과 같은 岩石으로 이루어진 山이 있었다」고 했다.

이 山의 이름은 본시 「瑞山」이라 했었다. 後에 山形이 軍幕와 같다고 하여 軍山이라 일컬게 되었다」는 것이다.

說話傳承者 姜元河 (남·34)

里誌 참조

5. 軍山에 얽힌 說話 (2)

狷來姜氏先世(倉川姜씨는 아닌듯)로서 學問이 깊은 사람이 軍山 앞 「만지세」에 살고 있었다. 그는 學問으로 이름이 높았기로 멀리서까지 글을 배우러 오는 사람이 많았는데 하루는 어떤 童子가 와서 글을 배우겠다고 하기에 이를 허락하여 일년쯤, 글을 배우고나니 그 才操가 非凡하여 못사람을 능가하게 되었다.

하루는 童子가 배우기를 그만하고 집으로 가겠노라하니 이를 허락하면서 앞으로의 면학에 對해서도 하나 하나 指示하고 이를 보내게 됐다. 그때에 童子가 스승에게 말하기를 「저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많은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원하는 바가 없느니라」 스승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나 內心은 자기의 원하는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어린 童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대로 돌아가라고 하여 놓고는 혼잣말로 「이 앞 냇소리(註: 倉庫川の 물흐름 소리)가 귀에 항상 거슬린다.…」 이렇게 중얼거렸다.

童子는 이 스승의 혼잣말을 재빨리 받아 듣고는 「그것은 고쳐 드릴 수 있습니다」 하였다.

「앞으로 오는 머지 않은 날에 갑작스럽게 벽력소리가 天地를 진동할 것이니, 그때는 집에 문을 닫고 그 소리가 멎을 때까지 기다리소서—」 하고 엎드려 스승에게 공손히 하직 인사를 하고 떠나가버렸다.

童子가 스승을 하직하고 떠나서 얼마 없음에 하루는 뇌성벽력이 천지를 진동하고 안개가 천지를 가리워 七日을 계속하다가 개이고 보니 山이 하나 생기고 내(倉庫川)는 그 山 건너편으로 옮겨져 있었다.

때는 高麗 穆宗때인데 朝廷에서는 전공재라는 博士를 보내어 이 山의 形像을 보니 軍幕形體라 하여 軍山이란 이름이 여기에서 생겼다고 한다.

이 軍山의 이름은 처음엔 瑞山이란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었다가 나중에 그 山의 모양에 따라 軍山이라 불리우게 되었다고 하거니와 瑞山이란 이

름으로는 다음과 같은 一說이 또한 傳해지고 있다.

이 山은 본디 中國에서 왔다고 한다.

즉 中國에 瑞山이 있었는데 하루는 中國에서 그 瑞山이 없어져 버렸다 그 뒤에 中國인이 濟州에 일이 있어 다녀간 일이 있는데 이 倉川 앞에 보니 中國에서 없어진 그 瑞山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瑞山이라 불리웠었다고 한다.

說話傳承者 姜泰玉 (남·75)

6. 軍山에 얽힌 說話 (3)

軍山 봉우리에 禁地가 있다.

山봉우리 위에 상덕이 둘이 있는데 그 상덕으로 둘러싸여있는 곳에 靈地가 있다. 이곳 地形은 나비가 교미하는 形體라고도 한다. 이 靈地에는 古來로부터 장사를 禁하고 있거니와 만약에 여기에 장사를 하였다가는 가뭄이 오래 계속되거나 큰 비가 오래 계속되어 사람들을 못살게 군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오래 전에 어느 해, 열래사람 하나가 이 禁地에 투장을 한 일이 있었다.

가뭄이 심해서 개천의 물은 모두 말라버리고 농토에는 곡식들이 갈라죽기 시작했다.

틀림없이 軍山禁地에 투장을 했다고 생각한 里民들은 모두가 軍山으로 올라가 이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사를 지낸 봉분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그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里民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軍山 禁地에 무엇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날 里民들을 동원하여 다시 올라가 찾았더니 산 봉우리에 碓(잔뜩)이 네모지게 갈라져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곳을 파 보았더니 시체가 들어 있었다.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봉분을 하지 않고 평장(平葬)을 해버린 것이다. 이 시체를 파내버렸더니 풍우대작하여 가뭄음이 끝났다는 것이다.

이 禁地에는 軍山봉우리, 즉 이 禁地에서 갑자기 죽사한 사람만이 묻힐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說話傳承者 姜泰玉 (남·75)

7. 명당자리 집터 배엄바리

濟州島에 古來로 명당이라 불리우는 집터가 세군데 있으니 하나는 「구아랑」이니 濟州市에 있고, 또 하나는 「여우내」이니 城山面 始興里에 있으며 그리고 倉川里에 있는 「배엄바리」 집터이다.

「배엄바리」라는 집터의 名稱은 집터의 地形에서 생긴 것으로 뱀이 도사리고 있는 形이라는에서 생긴 이름이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여기에 李씨가 집을 지어 살았다고 하는데 배엄바리 집을 지을 때 정시가 이르기를 「마당에 가마귀 머리만큼 돌이 나오거든 이사를 하라」고 했는데 집을 지은 뒤 가마귀 머리만큼 돌이 나와도 이사를 하지 않아서 亡했다는 말이 있다. 지금은 그 돌이 돼지 머리만큼 나왔다고 한다.

說話傳承者 姜龜恒 (남·81)

8. 猯 來

猯來마을은 倉川마을 동쪽 中文面境에 있는 마을로서 法選 앞바다에 있는 「범섬」과 關聯 있는 마을이다.

범섬 (虎島)은 범이 도사리고 앉아 있는 形體라 하여 그 이름이 생겼다고 하거니와 이 猯來에서는 이 마을을 멀리서 노려보고 있는 범을 이겨내는 짐승이름의 마을이 아니고서는 部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마을에 흥액이 끊기지 않는다는 說이 있어, 그범을 이긴다는 짐승인 「猯가 온다 (來)」로 하여 마을 이름을 「猯來」라고 했다고 한다.

처음에 大靜縣은 猯來縣이라고 하고 猯來마을에 있었다고 한다.

說話傳承者 金奉奎 (남·87)

9. 난드르와 든드르

倉川里 東쪽에 隣接하여 中文面境에 있는 下猓里에 俗稱「난드르」와 「든드르」라는 곳이 있다. 「난드르」는 「猓來縣」에서 멀리 떨어져 나왔다는데서 「난드르」, 「든드르」는 「猓來縣」가 사이에 들어와 있는 마을이라 해서 「든드르」라 했다는 것이다. 猓來縣은 大靜縣을 말함이니 이 大靜縣이 처음엔 猓來縣이라고 해서 猓來에 있었다. 「난드르」는 다시 「동난드르」와 「서난드르」로 나누어져 있다.

10. 당 캐

倉川里 南쪽 隣接된 마을로 大坪里란 마을이 있다.

본시 倉川里에 속하여 있었는데 1951년에 分里되었으나 법적으로는 아직도 倉川里 그대로 있다. 그 大坪마을 앞바다를 「당캐」라고 부르고 있다. 이 名稱은 中國으로 進上할 말을 이 「당캐」에서 실고 떠났다는 데서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곧 「당캐」는 「唐浦」에서 온 것이라는 것이다.

說話傳承者 姜泰玉 (남·75)

11. 어린 官員의 습기

어느 고을에 열 다섯난 아이가 관원으로 왔다. 고을 사람들은 너무 어린 사람을 관원으로 보냈다고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관원은 날이 지나고 달이 바뀌어도 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니 관속들까지도 그를 업신여기는 듯한 눈치였다.

이 고을 이방(吏房) 어머니는 이 어린 관원을 시험해 보고자 했다. 아무리 어렵도 자격이 있어 보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며 일부러 꾸며서 이 관원앞에 원정을 갔다.

「원통한 일이 있어 왔읍니다」

「원통한 일이라니 무슨 일이요. 말씀 해 보시오」

「다름이 아니라 간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는데 이 고을 아무개가

비록 꿈에서이긴 하지만 저를 붙들고 겁탈을 하였으니 억울하기 그지없읍니다. 이 일을 살피시고 저의 억울함을 들어 주옵소서.」

어린 관원이 묻기를

「그것은 사실이요?」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대답하였다. 어린 관원은 꿈에 이 부녀가 겁탈을 당했다는 남자를 불러드리니 이 남자는 이런 억울한 일이 없다고 새파랗게 질려 어떤 처분이 내릴 것인가 떨고 있었다.

어린 관원이 말하기를

「이 고을에 화공(畫工)이 있느냐?」

관속들이 대답하기를

「화공 하나가 있습니다」

대답하니 그 화공을 불러 들어 꿈속에서 그 겁탈을 하더라는 남자의 화상을 그리도록 명을 내렸다.

순식간에 남자의 화상이 완성되더니 매를 가져오라 하는 것이었다. 화공이 그린 남자의 화상에게 「엎드려라」 명을 내리더니 부인에게 매를 주면서 「이 화상을 마음껏 쳐라」 하는 것이었다. 부인이 매를 들고 이 화상을 치었다.

「꿈이 아니고 생중에 겁탈을 하였다면 그 겁탈을 한 자에게 벌을 줄 것이로되 몽중에 한 것이니 그 자의 그림을 그려서 매를 치었으니 이제 너의 원한도 풀렸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 매를 쳐야 했던 부인은 물론 이를 보는 관속들이나, 뒤에 이 말을 전해들은 고을 사람들은 이 짧고 어린 관원의 슬기에 놀라지 않은 자가 없었다고 한다.

說話傳承者 吳天錫(남·71)

12. 슬기로운 童子

여름철인데 아이들이 소를 먹이러 들로 나갔다. 시원한 들판에 소메를 풀어 놓고 산담 위에 앉아 사또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

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소를 그대로 둔 채, 인가가 있는 쪽으로 내려와서 어떤 집에 들어가 비를 피하며 들에서 놀던 사또놀이를 계속했다. 그때에 한 아이가 소변보러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관원이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관원이고 뭐고 무슨 상관이나며 사또놀이를 계속하자고 해서 사또놀이를 계속했다.

아이들이 사또놀이를 하며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과연 위엄있게 들어오는 어른이 있었다. 들어오면서 그 어른이 이르기를

「주인 계시오」

한참 놀던 아이들은 이 말을 듣고는

「웬 사람이요, 들어오시오」

다시 손님이

「비가 갑자기 내려서 비를 피하러 들어왔으니 잠깐 지체하게 해 주시오」

「거기 쉬었다 가오. 우리들은 바쁘오」

아이들은 손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듯, 자기네들의 사또놀이에만 정신을 쏟고 있었다.

그 때, 이 마을에 관원이 당도했다는 것을 마을사람들이 알게 되고 소원을 청하기 위하여 찾아온 한 사람이 있어 관원에게 아뢰기를

「소원을 아뢰니다」

「무슨 소원인가 말해봐라」

「저는 사냥바치(사냥군)인데 개를 데리고 다니며 노루를 잡습니다. 그런데 저의 개가 노루를 잡았는데 이 부락 사람들이 그 노루를 빼앗아 먹어버렸으니 원통한 일이옵니다. 그 노루는 저의 것인데 이 일을 처리하여 주옵소서」

하고 소원을 아뢰었다.

그 관원이 가만히 듣다가 「저기에 사또아이가 있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

보시오」 해서 아이들이 사또놀이 하는 곳을 가리켰다.

그 아이들이 한참 신이 나게 노는 곳으로 다가가서 이 사연을 말하고
해결을 청하였다. 이 말을 듣던 아이들 가운데서 사또되는 아이가 불쑥
나오더니

「이방(吏房)은 내 말을 적어라」

하고 큰 소리로 호령을 하니 이방되는 아이가 나와 앉았다.

그러자 사또되는 아이가 또렷또렷(分明)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皮歸於狗하고 肉歸於人하라」는 것이었다. 즉 노루 가죽은 개를 주고
고기는 사람을 주라는 것이었다.

이 말을 가만히 듣던 관원은 과연 명판결이라고 생각했다.

관원 스스로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던 것을 사또놀이를 하던 아이
사또가 이렇게 명쾌하게 판결해 버린 것이다.

이윽고 소나기는 멎고 쾌청한 날씨가 회복되었는데 한쪽 하늘을 보니
무지개가 곱게 서 있다. 관원이 사또되는 아이를 보고,

「너 무지개(虹)라 題하여 글을 지어라」하였다. 그 아이가 한참 생
각끝에 만든 글이

「靑紅數匹緞이

應出織女機요

欲製牽郎衣하여

洗掛兩後天이다」

라 하였으니 意譯하면,

「靑紅色 비단감을

織女가 짜냈는데

牽牛의 옷 짓고자

빨아서 걸어*놨네」

관원이 묻기를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아무 아무개입니다」

「내 나중에 너를 찾을 터이니 그때 만나라」 해서 관원은 그 자리를 썼다.

뒤에 이 고을 사또가 이 아이를 불러 그 뒤를 돌봐주게 해서 그아이는 크게 성공 하였다고 한다.

說話傳承者 吳天錫 (남·71)

13. 壯士 막사니

배엄바리 막사니가 이신디, 쉰놈 먹을 정심을 혼꺼번에 다 먹곡, 쉰놈 혼 일도 다 호곡 혼디, 호들은 군산앞이 평길 메왕 눈을 멘들젠 호난 막사니신디 난드르 강 놉빌어 두랭 호난 쉰놈 놉을 빌어시매 정심이나 허영 읍센 호난 정삼허연 전 스뭇 둥그런 강 보난 일은 호팍도 안 호곡 베갈라전 즙만 자곡 눈은 호방울도 멩갈지 아년 「야! 이놈아! 이거 쉰놈 놉빌렌 호난 이거라」 호난, 「쉰놈 먹을 정심 내놉서 나라도 먹영 호쿠다」 허연 에 쉰놈 먹을 정심 내노난 그걸 문작 혼꺼번에 다 먹연 「이젠 올라갑서」 허연 올라가멍 좌칠미텃동산이엔 혼디 앗안 보난 눈앞이 왁왁하고 그자 구뭉이 팡팡 허염선, 뒷날은 이젠 「가근에 물이나 대여봅서」 호난 말이 닳아베지 아녀도 (에이 이제랑 강 보져) 허연 강 보난 쉰놈 먹을 음식 문작 먹고 쉰놈 혼 일을 낫후제 문작 허여든 오랏더라 합니다.

경허고 동네 도둑질을 막 호곡 놉이 새왓이븐 새왓을 막 강 비여불곡 호난 호를 츠낙은 제삿날인디 이놈을 직허영 어디 꼬딱호지 못호게 호첸 마래구석에 녹져두서 행제호 동안 「막산아」 호민 「예」 호곡 「막산아」 호민 「예」 호명 이신디, 행자호 시간은 불르질 못허여십쥬.

(어치낙은 어디 안갓다 오랏쥬) 허연 뒷날은 이식이 동넛사름이 완 새 비여갓젠 허연 호미도 다 곱져 불고 혼디 아이고 간밤인 체사곡 호난 까막 어디 안갓다왔젠 허여도 막 새왓 마타나랜허연 강 보난 마래츄록 가청간 새 이른바릴 비여브러텡 합니다.

경허고 하도 막사니가 배엄바리서 경 배가 권 글주후첸 그대로 질루단 호들은 쯤쌀 일곱말로 술오매길 허연 큰 마래도고리로 하나 허연 오매지

떡을 퍼난. 「너, 실피 먹고칭 혼냥 먹으라」 혼난 손가락으로 꿰멍 오막오막 문짝 먹단 혼날 냉견 「전, 왜?」 혼난 「이전 각시나시마씀」, 「먹으라, 각시나신 있다」 혼난 기냥 움막 들러먹언, 그즈룩 혼난 그때부턴 굶져졌구나하고 이젠 드랑 살지 못홀루구나, 허연 이거 드랑 살당은 집이 망하나 무신 송시가 이시카부덴 허연 「너 가구경 혼디 가라」 혼난 이젠 막사니마치 막 하공거 시전 그자 곡석이영 다 시전 몰아아전, 저 모판드레 가는데 막사니구석이엔 혼디 몰아단 내부난 그자 낭우이 앓앗당 췌도 넘어감시든 빨도 털영 잡아먹곡 사름도 넘어감시든 두드르곡 경 허멍 어뎡어뎡 혼단 그디서 죽으난 막사니 구석이엔 혼디 빌리고지 그릇밧디 재완 잇뎡 홉니다.

說話傳承者 이신생 (여·52)

信 仰

指導教授	玄	容	駿
班 員	文	聖	淑 (국4)
	李	起	奉 (국2)
	金	承	順 (국1)

차 례

I 概 觀	II 家 庭 信 仰
1. 村 落 背 景	1. 土 神 祭
2. 概 況	2. 巫 式 家 祭
III 部 落 信 仰	IV 祖 上 崇 拜
1. 農 圃 祭	1. 節 祭
2. 祈 雨 祭	2. 忌 祭
3. 堂 饗 禮	3. 墓 祭
	V 結 語

I 概 觀

1. 村落·背景

宗教現象을 살피는 데 있어, 넓은 地域 안의 一部地域에 限定하여 살핀다 해도, 그 地域의 地理·歷史의 背景과의 關係를 無視할 수는 없다. 倉川里民의 信仰生活을 理解함에 있어서도 그 背景的 要素를 念頭に 두고 接近해 갈 필요가 있다.

倉川里의 地理的, 歷史的, 文化的 諸背景에 對해서는 이미 社會背景 項에서 詳論되어 있지만, 信仰分野의 바른 理解를 위해서, 적어도 다음의 事

項들은 다시 回想해 두어야 할 것이다.

① 倉川里는 濟州島의 一地域이요, 南濟州郡의 一個 部落이다. 따라서 濟州島의 宗教構造, 山南地方의 얼마간의 宗教의 特性이라는 一般性을 지녔을 것임은 當然하다.

② 倉川里는 安德面의 一部落이요, 東으로 上·下狹里, 西로 柑山里, 南으로 大坪里, 北으로 上倉里에 接해 있으므로 이 周邊部落의 信仰과 關係가 깊을 것이다.

③ 倉川里는 海岸에서 멀리 떨어진 中山間部落이요, 따라서 主產業이 農業이므로 그 信仰構造도 農業과 關係가 깊을 것이다.

④ 이 마을 남쪽 변두리로 倉庫川이 지나고, 그 곁에 갖가지 傳說이 얽혀 靈山視되는 軍山이 있다. 이러한 地勢, 地形의 特性은 里民의 信仰構造에 적잖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⑤ 마을은 最初 姜씨가 入住 設村하고, 그 後 그의 사위인 吳씨, 金씨가 入住, 그 後孫들이 繁昌하여 部落의 主 氏族을 이루었고, 그들은 經濟的으로 富裕했을 뿐 아니라, 李朝社會의 儒學的 氣風에 篤實하였으므로, 그 信仰面에 있어서도 儒教的 色彩가 짙고, 거의 齊一性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信仰部面의 調査에 있어서도 特히 이런 面에 留意하여 調査에 臨하였다.

2. 概 況

現在 濟州道內에서 宗教로서 公認되어 있는 것은 佛敎, 天主教, 基督敎 水雲敎, 其他 新興宗教들인 바, 倉川里에는 이들 公認 宗教의 敎會나 寺刹이 없다. 따라서 公認宗教의 信徒가 極히 적을 것은 當然하다. 그래서 現在 253家口 997里民가운데 公認宗教信仰 家口는 佛敎 信仰家口가 數世帶 있을 뿐 里民의 大部分이 無宗教이다. 이 無宗教라는 것은 곧 民間信仰層이 된다.

里民의 主要 儀禮 行事들을 分類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部落信仰의 儀禮이니, 部落民 全體가 部落民 全體의 福利를 위하여 行하는 것으로서, 男性들에 의하여 儒教式 祭儀로써 行하는 農醮祭 祈雨祭 등과 女性들이 主管하여 巫覡에 의하여 執行되는 堂儀禮가 있다.

둘은 家庭信仰의 儀禮이니, 家庭單位로 집안의 福利를 위하여 行하는 것으로서, 儒教式 祭法으로 行하는 土神祭와 巫俗的 儀禮로써 行하는 여러가지 祭儀가 있다.

셋은 祖上崇拜의 儀禮이니, 이는 親族單位로 行하는 崇祖祭로서, 節祭 忌祭, 墓祭 등이 해당된다.

이 三類型의 信仰行事를 좀더 詳細히 기술함으로써 里民의 信仰實態 把握에 資하고자 한다.

Ⅱ 部 落 信 仰

1. 農 醮 祭

① 祭 名 : 農醮祭라 한다. 島內 他部落에서는 마을제, 동넛제, 醮祭, 거릿제(街祭), 致誠祭 등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마을에서는 祭儀의 目的인 豊農이라는 面을 그 祭名에 반영시키고 있다.¹⁾

② 祭 神 : 軍山之神位와 里醮之神位 兩位이다. 島內 他部落의 경우는 醮神, 里社之神, 洞社之神, 土地之神, 守土之神 등 村落守護神의 機能의 神을 主對象神으로 하고, 거기에 染疾之神, 牧畜之神, 諸首任之神, 諸神, 無祀鬼神 등 여러가지 機能의 神格과 怨魂을 副對象神으로 儀禮하고 있는데,²⁾ 이 마을엔 軍山之神位를 里醮之神位와 함께 主對象神으로 삼고 있는 점이 特色이다. 軍山은 다음의 祈雨祭 項에서 說明하는 바와 같이 祈雨祭

1) 李杜鉉 他 『部落祭堂』p.182 1969. 文化財管理局

2) 玄容駿 「濟州島의 儒式部落祭」 『石宙善教授回甲記念 民俗學論叢』 pp.230~232 1971.

의 祭場이 되어 祈雨의 効驗이 있다고 믿는 山이며, 傳說項에서 보는 바와 같이 傳說로 얽혀져 神靈이 있는 山이라고 믿어지고 있으므로 그 山神이 部落의 守護와 豊農에 密接히 關係되리라는 것은 當然한 생각이다.

③ 祭日:陰 6月, 조(粟)播種을 끝내고 吉辰을 擇日하여 子時에 行한다. 島內 他部落의 경우는 正月의 上丁日이나 亥日에 行하는 곳이 많고 또 正月과 七月의 上丁日 혹은 亥日에 二回 行하는 곳이 있는데,³⁾ 이 마을엔 6月の 조播種後로 되어 있어 部落新年祭的 性格보다 豊農祭的 性格이 表面上에 顯著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特色이다. 濟州島의 農業은 보리와 조가 두드러진 것인데, 보리의 豊農보다 조의 豊農을 傳統的으로 祈願해 왔다는 것은 조농사가 보리농사보다 古來의인 것이요, 主農業形態였음을 推測케 하는 重要한 것이다.

④ 祭場:마을 남쪽 軍山 기슭에 있는 <가메소 뒷동산>이라는 곳에 祭壇이 있어, 그 祭壇에서 行했었다.

⑤ 祭儀管理:近代의 行政組織 體制가 서기 以前에는 部落共同體의 自治組織인 鄉會가 있었었는데, 農圃祭는 이 鄉會에서 管理하었다.

鄉會의 組織은 鄉長—警民長—尊位—農監—機察—洞將—下輩의 組織 體系를 갖추고 있는 것인데, 警民長 以下 洞將까지를 <마을執綱>이라 한다. 鄉長 以下 마을執綱은 里民會議인 鄉會에서 選出되며 그 機能은 다음과 같다.

鄉長~最年長者가 되며, 部落의 長으로서 權威의 存在이다.

警民長~舊行政體制의 마을의 長으로 實質的인 長의 구실을 한다.

農監~농사 關係로 일어나는 분쟁, 牛馬로 因한 作物 被害의 賠償問題 등을 解決 監督하는 役割을 한다.

機察~警民長을 輔佐하여, 오늘날의 警察과 같이 部落內의 秩序維持를 위한 職務를 行한다.

洞將~部落內의 實質的인 諸般事務를 擔當 執行한다.

3) Ibid. p. 232

下輩~一名 <임>이라 하고 部落의 公用 심부름꾼이다.

鄉會는 祭日 20日前에 召集되어 위의 尺을 執綱을 選出하고, 또 그 祭官도 選出하며 祭費의 歛出, 經理等 諸般問題가 協議된다.

⑥ 祭費: 마을 各戶에서 내어놓는 쌀, 좁쌀등을 下輩가 돌아다니며 모아오면 그것으로 祭物을 차린다. 쌀이나 좁쌀을 내어놓지 못하는 家戶에서는 보리쌀을 내어놓는데, 이는 팔아서 雜費에 充當한다.

⑦ 祭官: 島內 他部落과 마찬가지로 12祭官이다. 그것은 鄉校式과 같으니 다음과 같다.

初獻, 亞獻, 終獻, 執禮, 大祝, 贊者, 謁者, 奉香, 奉爐, 奉爵, 奠爵, 司樽.

이 祭官들은 祭日 3日前에 祭廳에 모여 合宿 齋戒하고, 마을의 出入口에 금줄을 매어 不淨人의 出入을 禁한다.

⑧ 祭物: 祭日 前日에는 祭物을 準備하고 祭時가 가까와가면 祭壇에 祭物을 陳設한다. 그 祭物은 다음과 같다.

白米 2器, 粟米 2器, 犧牲 (돼지 1마리), 幣帛 (광복이나 무명 1필, 그리고 白紙 1권), 脯 (쇠고기) 1器, 魚需 (생선) 1마리, 醢 (쇠고기) 1器, 菁菹 1器, 苻菹 (미나리채) 1器, 五果 1器, 醴酒, 毛血 (돼지 머리의 털과 염통의 피 약간) 이들 祭物中 멧밥을 除外하면 모두 날것으로 올린다.

⑨ 祭次: 陳設이 끝나고, 祭時인 子時가 되면 祭官들이 拜位에 들어서고 執禮가 부르는 笏記에 따라 鄉校의 釋奠祭 자내듯이 行祭한다.

그 行祭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奠幣禮 (初獻官이 祭壇으로 나아가 幣帛을 올림)
- 2) 初獻禮 (初獻官이 나아가 獻爵함)
- 3) 讀 祝 (大祝이 祝文을 고향함)
- 4) 亞獻禮 (亞獻官이 나아가 獻爵함)
- 5) 終獻禮 (終獻官이 나아가 獻爵함)

6) 飲 福 (初獻官이 나아가 執事가 주는 술을 받아 마심)

7) 擗 籩 苳 (執事가 各 祭物을 설것이하는 모습을 함)

8) 焚 幣 (初獻官이 望燎位에 나아가 幣帛을 불사름)

이와 같이 하여 祭를 끝내고 犧牲으로 쓴 돼지를 삶아서 一同이 酒肉을 나누어 먹는다.

⑩ 祝 文 : 이 農醑祭가 廢止된지 오래어서 當時의 祝文은 入手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祝文의 내용은 농사를 끝마치고 吉日을 擇하여 精誠을 드리니 雨順風調하여 豐年이 들게 하여 주시라는 것을 漢文으로 써서 朗讀하는 것이라 한다.

⑪ 豫 兆 : 行祭時, 평이 울거나, 말 울음 소리가 나면 吉하다고 한다.

⑫ 廢 止 : 以上과 같은 農醑祭를 每年 지내어 왔었는데, 1947年 吳文京區長 때 廢止하고, 그 후 行하지 않게 되었다.

⑬ 性 格 : 以上の 祭儀 내용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信仰性格을 要約할 수 있다.

ㄱ. 이 農醑祭는 他部落의 마을제, 醑祭와 같이 女性들은 關與하지 않고, 部落의 男性들만이 管理 執行하는 男性의 部落信仰이다.⁴⁾

ㄴ. 他部落의 마을제, 醑祭는 男性 新年部落祭의 性格이 짙는데, 이 마을엔 男性 豐農部落祭의 性格이 짙다.

이는 이 마을의 產業構造와 密接한 것이라 생각된다.

ㄷ. 祭神으로서 軍山之神位를 모시고 있음이 특색인데, 이는 部落의 自然環境이 部落信仰에 크게 영향한 것을 말해주며, 傳統的인 山岳崇拜가 部落信仰에서 傳承되어 온 것이다.

ㄹ. 他部落에는 지금도 醑祭가 存續되고 있는데, 이 마을이 일찌기 廢止한 것은 他部落만큼 保守性이 세지 못함을 意味하는 것인지 모른다.

4) Ibid. pp227~252

2. 祈 雨 祭

① 祭神：軍山之神位.

軍山은 里民들에게 神靈 있는 山으로 믿어지고 있다. 軍山은 봉우리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 이 두 봉우리 사이 몇步 周圍안을 靈地라 하여 神聖 視한다. 만일, 이 靈地에 葬事(凶葬이라 한다)를 하면 반드시 오래 가물거나, 장마가 계속된다. 日帝時代에도 크게 가물어서 作物이 말라 죽게 되므로, 이 軍山 上峯을 뒤져 보았더니 封墳이 있었다. 그 封墳을 파헤쳐 보았으나, 虛葬이 있고, 그 周圍를 살살히 파헤쳐 보았더니 平地에 몰래 埋葬해 있었다. 이를 파헤쳤더니 即時 비가 내렸는데, 그 때 暗葬한 사람은 貌里 사람이었다 한다. 이런 일이 日帝 때만도 두번 있었다 한다.

이처럼 靈山視되는 軍山の 神에게 祈雨祭를 지내면 꼭 비가 온다고 믿을 것은 당연하다.

② 祭場：靈地라고 일컬어지는 軍山の 두 봉우리 사이에 臨時祭壇을 꾸며서 行한다.

③ 祭日：오랜 가물이 계속될 때 擇日해서 한다.

④ 祭儀管理：祈雨祭는 그 周邊部落이 合同으로 행하므로 먼저 五個里 合同會議를 열어, 거기에서 祭官을 選出하고 祭費의 收斂方法, 運營方法 등을 協議하여 집행한다.

이 때의 初獻官은 먼저 祭儀舉行을 發議한 部落에서 나옴이 一般이라 한다.

最近의 祈雨祭는 1963年 5月 14日부터 1964年(月日未詳)까지 在職했던 吳仁芳里長當時, 倉川里, 上倉里, 大坪里, 柑山里, 上貌二里, 五個里 合同으로 舉行한 것이다.

⑤ 祭費：五個里 各戶에 分擔, 收斂한다.

⑥ 祭官：農醮祭 때와 같이 12祭官이다.

⑦ 祭物：農醮祭 때의 祭物차림과 같다.

⑧ 祭次：農醮祭를 지내는 순서와 꼭 같이 執禮가 부르는 笏記에 따라

12祭官이 행한다.

⑨ 祝文：

維歲次 云云 …… 敢昭告于

軍山之神 伏以惟嶽之靈 峻極于天 鎮茲一隅 節彼千年 蓄雲池雨 厥施
攸傳 迨今彌月 旱魃熾毒 人故魚夢 野見龜折 苗枯千栢 水渴四澤 伏願
神明降之 甘露月羅 畢星水澆 銀河油然 沛然渤然 苗興造其 雲雨澤被
生靈使我 封疆滂沱 千里慰滿 三農日吉辰良 敢謁微誠 以牲幣奠 嶽尚饗

⑩ 特性：

ㄱ. 이 祈雨祭도 女性들의 關與없이 男性들만이 管理 집행하는 男性部
落信仰儀禮요, 儒教式 儀禮이다.

ㄴ. 祈雨祭는 一般的으로 海神, 水神을 對象으로 行함이 많은데, 여기
서는 山神이 그 對象으로 되어 있다. 이는 軍山 周邊의 部落民들에게 古
來로 傳해 내려오는 軍山信仰을 보여 줌과 同時에, 部落의 自然環境이 部
落信仰에 주는 影響을 如實히 보여 주는 것이다.

3. 堂 儀 禮

① 本鄉堂：이 마을의 本鄉堂은 <닥밭당>이다. 本鄉堂이란 巫俗의 部落
守護神의 神堂이다. 닥밭당은 마을 南쪽을 가로 지른 창고내 (倉庫川) 가
의 <닥밭>에 있다. <닥밭>은 닥나무 (楮木) 가 있는 밭이라는 데서 命名
된 것이며, 따라서 당은 닥나무로 옥여져 있다.

村老들의 말에 따르면 여기에 堂神을 모시기 시작한 것은 約 100年前의
일로 이 마을의 吳宅 어른이 柑山里<도고샘이>에 있는 <일뤼당>을 갈라
다 모신 것이라 한다. 그 전에는 倉川里民들이 柑山里 일뤼당神을 守護神
으로 하여, 그 당에 가서 儀禮를 해왔는데, 심방 (巫覡) 들 사이에 다툼
이 생겨 갈라 모셔 왔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심방이 말하는 이 당의 본
풀이에는 倉川里 번내침 (和順宅) 吳堂長이 갈라다 모셔서 상단풀이 되었
다고 한다.

이 당이 있는. 닥밭은 닥나무가 많이 육어져 있고, 바위와 石盤이 널려 있어, 別途의 祭壇의 꾸밈이 없이 石盤 위에 祭物을 陳設하여 儀禮하고, 많은 닥나무 중 神木으로 特定된 것도 없는 듯하다.

② 堂神: 柑山里 일채당神을 갈라온 것이므로 그 神은 柑山里 堂神과 같다. 柑山堂神을 <감산이 일채중저> 또는 <감산이 도고샘이 일채중저>라 하고, 갈라온 倉川里 堂神을 <닥밭할망> 또는 <닥밭할망 일채중저>라 부르며, 女神이다.

다음의 본풀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來歷을 보면 이 神은 下貌里 堂神인 <동백 자하로산(父)>과 <족다리 대서부인(母)> 사이의 다섯째 딸이라 한다.

나이가 들면서 父母 눈에 거슬림을 받아, 부모슬하를 떠나 漢拏山으로 큰장오리로 방랑하다가 솟밭야개라는 곳에서 朝天의 김준이의 아들을 만났다. 김준이의 아들은 사냥을 하러 漢拏山을 돌아다니다가 여기에서 이 처녀를 만난 것인데, 둘이는 夫婦間이 되어 안소뭇으로 불래오름으로 꺾 접 해변 쪽을 향하여 내려왔다. 並岳山을 거쳐 산지구석이라는데 와서 식사를 하려는데, 더데오름을 보니 白사슴이 보이므로 총으로 이를 쏘아 죽이고 五臟을 내어 시원석석하게 조반을 먹었더니, 마침 큰 비가 쏟아지고 내가 크게 터져 흘러 내렸다. 女神은 이 냇물에 쓸려 마구 흘러 내려가다가 柑山里 도기샘이 (샘 이름·바로 냇가에 있음) 에 漂着하였다. 當時 柑山里 묵은 터에 사는 高씨가 이 神을 처음 보고, 도기샘이 그 자리에 모셔 상단골이 되어 위해 내려왔다. 그래서 倉川里民들도 이 神을 위하여 柑山里까지 가서 儀禮를 해 오다가 번내침(和順宅) 吳堂長이 이를 갈라다 지금의 닥밭당에 모시기 시작한 것이라 한다.

③ 본풀이: 위의 堂神 來歷에서 이 神의 崇拜由來가 說明되었지만, 심방이 말하는 이 神의 본풀이를 여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토조본향¹⁾(土主本鄉)은 본(本)²⁾은 6남자(六兄弟). 아방국(父)은 동백 자하로산³⁾(東壁坐漢拏山), 어명국(母)은 족다리대서부인⁴⁾. 큰똥

(長女)은 난뜨르(大坪里) 당밭물리 일째중조⁵⁾(七日中姐), 둘째 딸(第二女) 상열리(上隰里) 망밭중조, 셋째 딸(第三女)은 화순(和順里) 원당밭중조, 넷차는⁶⁾ 사계(沙溪里) 청밭할망중조, 다섯차는 감산, 창천(柑山·倉川) 일째중조, 오섯차는⁷⁾ 상열리(上隰里) 전신당도웨병서서리 도공수처⁸⁾.

가지 갈라 위(位) 갈라 오실 때는 아방(父) 눈에 어멍(母) 눈에 시시나⁹⁾, 부모밑하(父母膝下) 떠나서 할라영주산(漢擎靈洲山) 큰장오리¹⁰⁾ 댕밭머리¹¹⁾ 솟밭야개¹¹⁾ 와 좌정(坐定)해얏더니, 조천관¹²⁾(朝天館)은 짐준잇¹³⁾ 아들 솟아나니, 식설(三歲)적부터 왕대총을 맨들고 총쏘기를 설연해야¹⁴⁾, 노리¹⁵⁾ 사슴 잡아 먹자, 한라산(漢拿山)을 치드르니, 처녀(일째중조)¹⁶⁾ 불 만나 놓고 부베간(夫婦間)을 삼아, 어딜로 가라 하니 댕밭머리 솟밭야개 떠나고 도느리자¹⁷⁾, 안소못¹⁸⁾ 불래오름¹⁹⁾ 도느려 새오름²⁰⁾ 을 도느려, 한세빛대기²⁰⁾ 도느려, 어딜로 가라 하니, 췌망오름²¹⁾ 도느려 병악산²²⁾(並岳山)을 도느려 산지구석²³⁾ 좌기(坐起)하고, 식상(食床)을 받는 중에, 더데오름²⁴⁾ 백사슴이 이시니, 총 혼박을 놓고 보니 백사슴이 죽었다. 백기교²⁵⁾ 감내석석 오장(五藏)을 조반(朝飯)반찬 하고 보니, 큰비(大雨) 대우방수천리(大雨方數千里) 하니, 난더 없는 큰 방천이 시더져²⁶⁾ 꺾어온다. 방천에 꺾어가단 닥밭으로 좌기(坐起)하자 이식(意識) 허여, 못셀러라.²⁷⁾ 감산이(柑山里) 도기습²⁸⁾으로 시어올려²⁹⁾ 좌기허여, 북은터³⁰⁾ 고침(高峯)이 처음으로 보고 상단굴³¹⁾(上丹骨)로 위망³²⁾(爲望)하던 본향이라.

감산(柑山) 상·하창(上·下倉)본향으로 위망하다, 창천이(倉川里) 변내침(和順宅) 오당장(吳堂長)이 가지 갈라 상단굴(上丹骨)이 되고 창천이 만든 백성이 위망하는 본향이라.

(1959年 倉川里 男巫 高昌鶴 口誦)

註) 1) 部落守護神인 本郷堂神을 일컬음. 2) 根本은. 3) 父神의 神名.

4) 母神의 神名. 5) 大坪里 堂神名. <당밭골리>는 堂이 있는 地點의 地名. 6) 넷째는. 7) 여섯째는. 8) 上狻里 전신당신의 神名. 9) 父母 눈에 거슬리어의 뜻. 10) 漢拏산에 있는 池沼名. 11) 涯月面境 漢拏山麓에 있는 地名. 12) 現 朝天面 朝天里. 13) 神人名. 14) 마련하여, 시작하여. 15) 노루. 16) 柑山, 倉川里 本郷堂神. 17) 도로 내리자. 18) 한라산에 있는 地名. 19) 靈室의 岳名. 20) 涯月面境 山麓에 있는 地名. 21) 中文面 穡達里境에 있는 岳名. 22) 上倉里境의 岳名. 23) 上倉里境 川邊絶壁名. 24) 上狻二里에 있는 岳名. 25) 가축을 벗기고. 26) 쏟아져. 27) 못쓰겠다. 28) 現在 柑山里 이렛당이 있는 곳. 도기쟁이. 29) 표착하여. 30) 柑山里에 最初 移住하여 온 高氏의 집터. 31) 第一 계층의 信仰氏族. 32) 崇拜.

1659年 8月에 男巫 高昌鶴翁을 만나 이 본풀이를 蒐集하였고, 이번 調査에서 確認, 再調査하려 했으나, 高翁은 이미 別世하고, 그 巫業을 世襲한 이도 없었다. 現在 部落 안에 심방은 한사람도 없고, 따라서 이 神의 본풀이를 아는 이는 한사람도 없어, 當時 採録했던 것을 그대로 收錄한다.

④ 祭日: 이 당은 이렛당이므로 每七日, 곧 每月 7日, 17日, 27日에 당에 가서 儀禮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部落의으로 하는 祭日은 1月 17日 過歲祭, 5月 17日 마불림제, 8月 17日 추석제가 있고, 11月 12월에 한번 추수에 대한 감사의 儀禮를 한다.

⑤ 儀禮: 祭日에는 部落의 各家口에서 주부들이 제물을 차려 모여오면 部落의 심방이 비념形式으로 各々 축원을 하여 준다. 전에는 部落에 심방 高昌鶴씨 부부가 있어, 그 부인이 당의 儀禮를 맡아 했다. 이 堂神은 女神이므로 男巫는 出入하지 않는다 해서 그 부인이 儀禮를 담당했다 하며 女神이므로 洞民들도 여인 外에는 參禮하지 않는다 한다. 現在는 部落에 심방이 없으므로 부인들이 제물을 차리고 가서 自己대로 간단히 儀禮하고 온다 한다. 部落民들의 말에 따르면 現在 이 당에 가는 家戶는 70~80%쯤 될 것이라 하며, 近來 新生活運動으로 堂儀禮를 禁止할 때도 警察官이 와

서 비념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祭物차림의 초라한 것을 보고 말을 못 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⑥ 性格：以上으로 보아, 이 堂信仰의 性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男性들의 出入이 禁止되고 여성들만이 主管하여 儀禮하고 있으니 여성들의 巫俗 部落信仰이다.

둘째, 이 堂神은 本來 柑山里의 設村氏族인 高씨의 一家守護神이었던 것이 柑山里의 部落守護神으로 化하고 나아가 倉川里的 部落守護神으로까지 된 것이다. 그 來歷譚인 본풀이에서 본 바와 같이 柑山里의 〈목은터〉에 처음 入住한 高씨가 이 神을 처음 모시기 시작했으니, 그 때는 그 高씨 一家의 守護神이었음이 分明한데, 그 후, 그의 子孫들이 增加하면서 이 神을 守護神으로 모시게 되자, 氏族守護神의 性格을 띠었겠음은 事實이겠다. 한편, 〈목은터〉 高씨가 入住한 것은 700餘年前이라 하고, 그 후 於道 姜씨, 倉川 姜씨등이 入住하였다 하니, 이 後來 氏族인 姜씨들이 先住 氏族인 高씨의 守護神을 같이 共同으로 崇拜하게 되어 柑山里의 部落守護神의 性格으로 化한 것이라 본다. 그래서 280餘年前에 入住한 倉川里의 設村始祖 姜씨도 이웃 柑山里의 部落守護神인 이 神을 共同으로 崇拜, 儀禮해 오다가 倉川里民이 많아짐에 따라 獨立 部落守護神으로 갈라다 모시게 된 것이라 보는 것이다.

셋째, 本來 柑山里 〈목은터〉 高씨의 一家守護神으로 보이는 이 堂神은 生業面에서 보면 본래 狩獵守護神의 性格이 있었던 것이라 보인다.

그것은 이 柑山里 高씨의 設村由來를 들으면 그가 當時 狩獵을 生業으로 했다 하며, 이 神의 본풀이에 보면 神이 漢拏山에서 部落를 向하여 내려 오면서 〈더덕오름〉에서 사슴을 쏘아 먹으며 내려 왔다 하여 狩獵生活을 反映하고 있는 점에서 推測된다.

柑山里의 設村由來를 보면, 約 700餘年前 陸地에서 高씨와 柳씨가 柑山里에 들어와 바로 이웃에 살며 사냥을 業으로 삼아 서로 도와 살았다 한

다. 高柳 兩씨는 항상 같이 사냥을 다녀 매우 친한 사이인데, 하루는 둘이서 사냥을 하다가 착각이 생겨 멀리 있는 高씨가 柳씨의 눈에 짐승으로 보였다. 그래서 쏘아 맞혔는데, 그것은 짐승이 아니라 高씨였다. 죽어가면서 高씨는 자손들에게 「착각하여 쏘은 것이니 용서해 주라」고 했지만 結局 柳씨는 高씨 자손들에 의해 代殺당하였다. 이런 관계로 柳씨 자손은 윗 마을인 通泉里로 옮아가 새로 設村하고, 高씨 자손은 柑山里에 그대로 남아 살게 되었다 한다.

이런 이야기로 보아, 當時의 入住民들의 生業이 狩獵이었음을 알 수 있는 同時에 그들의 狩獵生活이 그대로 神의 生活에 投影되어, 본풀이의 內容이 狩獵要素로 짜여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生活에서의 守護神은 生業인 狩獵의 守護와 깊은 關聯이 있게 마련인 것이다.

Ⅲ 家庭信仰

1. 土神祭

- ① 祭神：土地之神位. 祭를 지낼 때 土地之神位라 紙榜을 써 붙여 한다
- ② 祭日：陰 正月 初旬 擇日. 子時에 行祭.
- ③ 祭場：집 울타리 안 空地 깨끗한 데 제단을 차려 한다.
- ④ 祭物：白米매 2器, 粟매 2器, 犧牲 닭 1마리, 脯(쇠고기) 1器, 魚需 1器, 靑菹, 芹菹 各 1器, 五果 1器, 술, 幣帛 무명 1필.
- ⑤ 祭官：男主人이 축문을 쓰고 告할 줄 알면 本人대로 하고, 할 줄 모르면 祝文을 쓰고 告할 줄 아는 洞內 男子를 빌어 한다.
- ⑥ 禁忌：祭日 3日前에 울래(집의 出入路)에 禁줄(원새끼)를 매어 不淨人의 出入을 금하고 祭日 밤이 되면 그 금줄을 푼다. 금줄을 계속 매어 두면 神이 못들어 온다고 한다.
- ⑦ 行祭：子時가 되면 祭官이 儒教式 祭法으로 行祭한다. 拜禮는 直拜를 한다.

⑧ 祝文例：

維歲次 云云 敢昭告于

土地之神 殿茲宅地 與天配德 惟時保佑 莫非其極 雨露所霑 日月所照
有願必號 有號必顧 卜擇吉辰 敢謁微誠 伏惟神明 特旋化柄 上座于天
下臨于土 變理陰陽 陟降左右 驅除邪祟 錫茲祉嘏 匪人何依 匪神何怙
萬事如意 一家平康 畜類蕃殖 穀物豐穰 非常時季 仰賴神護 隨時幸運
出入無憂 惟神監顧 永奠厥居 謹以牲幣 祇薦于神尚饗

(他人告則 有號必顧下 宅主何某 卜擇吉辰云云)

④ 性格：儒教式 祭法의 新年家祭로서 男性의 家庭信仰이다.

2. 巫 式 家 祭

① 種類：巫俗儀禮로서 집안에서 하는 儀禮들은 島內 他里의 경우와 비슷하니,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ㄱ. 祈子儀禮인〈불도맞이〉
- ㄴ. 出生儀禮인, 生後 3日, 7日, 百日, 뉘등의〈아기비넴〉
- ㄷ. 撫魂儀禮인〈귀양풀이〉〈시왕맞이〉
- ㄹ. 治病儀禮인〈아기비넴〉〈푸다시〉〈두린굿〉등
- ㅁ. 新築儀禮인〈성주풀이〉
- ㅂ. 長壽進慶儀禮인〈칠성제〉
- ㅅ. 新年進慶儀禮인〈맹감〉〈조왕제〉등

(儀禮의 內容에 대해서는 玄容駿 濟州島 海村生活의 調查研究(Ⅱ) 一信仰部門—參照⁵⁾)

② 豐農野祭：이 마을에서 特히 많이 行해지는 巫祭로서 〈맹감〉 또는 〈드르코스〉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儀禮는 豐農을 위한 家庭 單位의 巫祭로서 人家에서 떨어진 깨끗한 밭에 띠를 깔아 제물을 陳設하고 밤에 심

5) 玄容駿「濟州島 海村生活의 調查研究(Ⅱ) 一信仰部門—」『國文學報』 3輯 pp.20~47 1970 濟州大學國語國文學會

방이 行하는 것이다. 이 野祭는 東西南北中央의 명감神을 請하여 祭主의 집안의 豐農과 家内の 進廢을 빈다. 심방을 빌어다 巫祭로 하는 것이 一般이나, 儒式으로 祝文을 告하여 儀禮하는 집안도 있다. <명감>神은 땅을 차지한 神이라 部落의 여인들은 말한다.

③ 特性: 島內 海岸部落의 경우는 <요왕제> <연신>등 豐漁儀禮가 많은 데⁶⁾ 이 마을은 農村이므로 이런 儀禮가 없고, <드르코스>와 같은 豐農儀禮가 많이 行해지고 있다. 巫俗儀禮가 주로 여성들에 의하여 主管되는, 여성의 信仰임은 他里와 같다.

Ⅳ 祖 上 崇 拜

1. 節 祭

① 種類: 陽 1月 1日의 <정월명절>, 陰 3月의 寒食, 5月 5日의 端午, 8月 15日의 추석이 있었는데, 寒食과 端午는 日帝時代에 廢止하였다가 解放後 端午를 다시 復舊시켰다. 단오도 明年에는 다시 폐지하기로 하였다 한다.

② 行祭: 一般적으로 高祖父母까지 한 방에 進설하여 三獻이 行祭하고, 飲福한 後, 親族(八寸 以內) 집을 돌아다니며 같은 方式을 되풀이함은 他里와 같다.

③ 特殊節祭: 위의 四大名節은 島內 一般的인 것이었으나, 他里에 그리 흔하지 않던 節祭가 있으니, 떡국 차례와 冬至茶禮가 그것이다.

떡국차례는 正月 1日에 하는 것과 正月 15日에 하는 것이 있다. 正月 1日의 떡국차례는 親族들이 모여 正式 名節차례를 지내기 前에 아침 일찍 떡국, 과일, 적, 채소등 제물을 간단히 進설하여 焚香하고 單酌으로 茶禮를 지낸 후, 親族들이 모여 맷밥 其他의 여러 제물을 進설하여 正式

6) Ibid.

茶禮를 지내는 것이다. 正月, 15일의 떡국차례는 家廟에 떡국, 과일, 석, 채소등 제물을 올리고 單酌으로 茶禮를 지내는 것이다.

冬至차례란 亦是 家廟가 있는 집안에서 冬至날 아침 判죽을 쑤어 家廟에 올리고 茶禮를 지내는 것인데, 約 60年前 家廟가 철폐되면서 이 茶禮들이 없어졌다.

그러나, 지금도 떡국차례는 지내는 데가 있으니, 金씨덕의 경우는 陰 1月 1日 아침 일찍 떡국차례를 지낸 後 親族들이 모여 正式 名節茶禮를 하고 있고, 吳씨덕의 경우는, 一派에서는 陽歷 1月 1日에는 正式 名節茶禮로 親族들이 모여 하고, 舊正에는 떡국차례를 하고 있으며, 一派에서는 陽歷 1月 1日에 宗家에서 떡국차례를 한 후, 親族들이 모여 名節차례를 지내고 있다. 姜씨덕에서도 역시 陽歷 1月 1日에 떡국차례를 하고 있다

2. 忌 祭

① 對象: 長孫을 基準으로 하여 高祖父母까지 모심이 一般이나, 曾祖父母까지 모시는 家門도 있다.

② 參禮範圍: 高祖父母까지 모시는 家門이나 曾祖父母까지 모시는 家門이나 모두 八寸 以內의 親族이 參禮한다.

③ 財產分給과 祭祀: 祭祀는 長孫이 맡아 모시는 것이 原則이다. 即 父母의 忌祭이면 그 長男이, 祖父母의 忌祭이면 그 長男의 長男이 모시는 것이다. 萬一, 次男 以下가 父母의 祭사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제물을 차리고 長兄 곧 長男의 집에 가서 하고 와야 한다. 孫子代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長男, 長孫이 없을 경우나, 祭사를 차려 할 수 있는 財力이 없어질 경우에는 次男 또는 次孫이 맡아 하는 수도 있다. 하지만 祭사는 장손에게만 相續되는 것이 어디까지나 原則인 것이다. 節祭의 相續도 한가지다.

이 崇祖祭의 상속은 財產의 상속과 密接한 관계가 있다. 約 50年前 日帝 土地測量 前까지는 次男 以下에게는 田, 塚地등 田地의 상속을 一切

하지 않았었다. 次男 以下에게도 집은 지어 주고, 家具는 물려 주고 했지만, 그 집의 垆地는 長男의 것이었고, 後에 그 垆地를 사야만 자기 所有가 되었다. 간혹 耕作地를 臨時 주는 수가 있었지만 얼마간 耕作해 먹다 자 그것을 사거나, 長兄에게 돌려야 했었다. 그러나, 祖上에게서 상속 받은 田地 以外の 田地가 많은 경우에는 간혹 次男 以下에게 分給하는 일도 있었다.

現在는 祖上에게서 상속 받은 田地 以外の 田地는 次男 以下에게 均等히 分給하고 있으며, 祖上에게서 相續받은 田地도 그 數가 많으면 次男 以下에게 分給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는 部落의 여론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오늘날은 祖上에게서 상속받은 田地는 長男에게만 상속하고 그 以外の 田地는 아들들에게 均等히 分給함이 一般의 形式으로 되어 있다. 一例로 姜○○씨 집안의 상속狀況을 보면, 그의 父가 祖父에게서 상속 받은 田地는 2이고, 父 自身이 벌어 사들인 田地는 3이었다. 그런데, 그 父가 이 姜씨 兄弟들에게 田地分給한 것을 보면 長男에게는 父에게서 상속 받은 田地 2와 自身이 買得한 田地 1을 합쳐 3을 주고, 次男과 末男에게는 自身의 買得한 田地를 1씩 均等히 分給해 주고 있다. 딸에게는 勿論 田地 分給이 없다.

이런 田地 分給에 따라 古來로 崇祖祭도 장남에게만 상속되어 왔으며, 오늘날 次男 以下에게도 田地가 分給되는 일이 있다 해도 崇祖祭만은 그 長男, 長男으로 상속되어 가고 있다.

④ 行祭: 紙榜을 써 붙이고, 子時에 降神, 初獻, 亞獻, 終獻, 添酌 掃匙, 獻茶 擧籩豆의 順으로 行祭함은 一般의으로 같다. 그러나, 擧籩豆時 잡식하는 것은 다소 달라서 잡식을 하여 지붕에 올리는 집안도 있고, 잡식을 아니하는 집안도 있다. 숲씨 맥에서는 家廟가 있을 때 잡식을 하면 부인이 올래 (집의 出入路)에 가지고 가서 뿌렸었으나, 家廟 撤後 아니하게 되었고, <땀마리집>에서는 行祭때 올렸던 송향을 祭官이 먹었었다 또 계사 때 過去에는 告祝을 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⑤ 門祭：崇祖祭 때에 門神에게 지내는 門祭는 집안마다 조금씩 다르다. 金씨택이나 梁씨택에서는 門祭를 하고 吳씨택이나 姜씨택에서는 아니한다. 門祭를 하는 집안에도 祭次가 다르니, 金씨택에서는 祖靈에 대한 제사를 한 후에 하고, 梁씨택에서는 行祭前에 하고 있다. 또 門祭에는 磬국을 울리지 아니하고 筍갈도 아니 울린다. 理由는 神은 人靈과 다르기 때문에 神에게는 磬국을 아니 울리는 것이라 한다. 門祭 때에 잡식한 것은 지붕에 올리고, 門祭 行祭後 부엌의 조왕이나 其他 神에게 儀禮하는 일은 없다.

3. 墓 祭

墓祭를 하는 祖上의 代數는 집안마다 다르니, 가령 姜씨택에서는 倉川 設村始祖 姜潤聘 以上の 代만 墓祭를 하고, 金씨택에서는 倉川 移住 始祖의 一代 밑인 9代祖까지 하고, 吳씨택에서는 倉川 移住始祖인 9代祖까지 하고 있다. 結局 이 마을에 처음 移住해온 祖上까지 墓祭를 하는게 一般인데, 그 以下の 祖上에 대해선 여러가지가 복잡해서 묘제를 시작하지 않았다 한다. 묘제는 墓所에서 먼저 土神祭를 지내고 다음 祖靈夫婦兩位에 대해 行祭하고 飲福함은 他里와 大同하다.

V 結 語

以上 記述해 온 바를 綜合하면, 倉川里民의 信仰은 두가지 面에서 理解될 수 있다. 全島的 보편성과 部落的 特殊性이 그것이다.

部落信仰이나 家庭信仰에 있어서 남성들은 儒敎式 제법에 의한 農醮祭 祈雨祭, 土神祭등 獨自의 신앙구조를 만들고 있고, 여성들은 巫俗儀禮로 당비념, 巫式家祭등을 하여 여성 獨自의 신앙구조를 갖고 있다. 남성의 儒式儀禮, 여성의 巫式儀禮라는, 이 性別의 二重構造의 신앙체계는 濟州 島內 一般的인 것이어서, 보편성이라는 面에서 說明되는 것이다.

한편 部落信仰이나 家庭信仰이 農業이라는 產業形態에 集中되어 있고, 堂神을 이웃 마을의 神을 갈라다 모시고, 部落의 신앙대상에 軍山神이 重要的 意味를 갖고 있는 것 등은 이 部落의 自然的, 歷史的 背景에서 形成된 것이다. 이러한 신앙의 내용은 部落의 特殊性이라는 面에서 說明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떡국차례 冬至차례등 特殊崇祖祭나 崇祖祭의 長孫에의 상속등 祖上崇拜의 特殊樣相등도 部落住民의 傳統的 階層的 特殊性에서 說明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 部落의 신앙현상을 全島의 보편성과 部落의 特殊性的 兩面으로 接近함은 島內 他里의 경우에도 可能하리라 본다.